이준 오연서 결국 '우결' 하차

메트로 2013년 1월 31일 목요일 제2...호

일요 예능강자 목소리 대결

가장 싼 단독주택 달랑 79만원

NEWS p/02

하루 5번 긴급 공짜 주유 출동

NEWS p/03

나로호 발사 성공…우주 선진국 진입 p/02

연말정산! 나라에서 한 번 받고,
롯데카드로 한 번 더 받으세요!

연말정산 한 번 더 프로젝트

2013 시즌

2013년의 연말정산 롯데카드로 미리 준비하세요. **7개 항목 이용금액**의 **최대 3%**를 **롯데포인트로 한 번 더!** 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2012년 12월 1일~2013년 2월 28일
- 적립시기 2014년 2월 말 적립
- 신청방법 롯데카드 홈페이지 및 ARS(1577-5320) 신청
- 행사대상 신청회원 중 2013년 연간 개인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이 1천만원 이상인 회원
- 행사내용 롯데카드 7개 항목 이용금액의 1%~3%(최고 63만원)를 롯데포인트로 적립

LOTTE CARD

Entertainment p/20

이승기 배수지 첫 사극 연기

메트로 2013년 1월 31일 목요일 제2[illegible]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8

이상화 "소치까지 계속 간장"

마침내 하늘문 열었다

마의 9분 돌파 눈 못 떼는 관람객들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0일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자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 모인 관람객들이 일제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나로호 발사 성공… 노르웨이서 신호수신 '위성 정상작동' 확실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가 세 번째 도전 끝에 우주시대를 열었다 <관련기사 2면>

나로호는 30일 오후 4시 전남 고흥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으며 오후 5시 50분께 노르웨이 지상국에서 과학위성과의 첫 교신 접속에 성공했다

나로호가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최종 결론나면 우리나라는 북한에 이어 자체 제작한 로켓을 자국 발사장에서 쏘아올린 세계 11번째 스페이스 클럽 국가가 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한국형 우주발사체 독자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호발사추진단장도 "2009년에 성공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부족한 점이 있어 늦어져 죄송하다"면서 "오늘 발사 성공으로 국민의 성원과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러시아는 4만여 명의 연구 인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역사적인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는 이륙 직후 20여 초간 수직으로 비상했으며 900m 상공을 지나면서 '킥 턴(kick-turn)'을 통해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얀 궤적을 그리며 발사 54초 만에 음속을 돌파한 나로호는 3분 35초 후 고도 177km 거리 245km 지점에서 로켓 1단과 2단을 연결하는 페어링이 분리됐다

발사 후 3분49초에는 고도 193km, 거리 303km 지점을 통과하면서 1단 엔진이 정지됐으며 3분52초에 고도 193km, 거리 316km 지점에서 1단 로켓이 분리됐다

6분35초에는 고도 303km, 거리 1062km 지점에서 2단 로켓의 킥모터 엔진이 점화됐으며 7분33초에는 2단 로켓이 연소를 마치고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

위성 분리는 발사 후 9분 뒤 이뤄졌다 궤도에 진입한 위성은 초속 8km의 속도로 지구 주변을 하루 14바퀴 타원형으로 돌게 된다

위성은 우주방사선 및 우주이온층 분포 측정, 태양 폭풍이 통신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국내에서 개발한 레이저 발생기, 반작용 휠, 적외선 영상센서 등의 기술력을 검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서야 우주개발에 착수했지만 빠른 시간 안에 기술 자립화를 이뤄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열게 됐다

92년 우리나라 첫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지 20여 년 만이다

한편 발사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앞서 두 번의 실패에 따라 긴장과 기대 섞인 눈으로 나로호의 발사 순간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발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현장의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며 이내 웃음꽃이 피었다

한 시민은 "드디어 우주 진출의 관문을 두드렸다"면서 "발사 성공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앞선 2번의 실패와 2번의 연기 과정에서 역경을 이겨낸 항우연 직원들도 환호와 눈물로 뒤섞였다

/배동호기자 eleven@metroseoul.co.kr

한국영화 무서운 질주

연초부터 '7번방의 선물' '베를린' 등 흥행돌풍

지난해 최고의 호황기를 누린 한국영화가 연초에도 '티켓 돌이' 관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30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7번방의 선물'은 29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2[illegible]만 1[illegible]4명을 보태어 상영 8일 만에 233만7759명을 동원했다.

액션 대작 '베를린'(사진)도 준수하게 스타트를 끊었다. 투자·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가 관객들의 빗발치는 조기 개봉 요청을 받아들여 전야제 형식으로 당초 개봉일보다 하루 앞당긴 29일 오후에 공개했는데, 관나절 동안 13만[illegible]04명을 불러모아 '7번방의 선물'에 이어 일일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30일 오전 예매 점유율은 예매 전문 사이트 맥스무비에서 무려 60%까지 치솟았다 맥스무비 측은 "오프닝 예매 점유율로는 지난해 최고 흥행작인 '도둑들'에 비해 20% 포인트나 높다"고 밝혔다.

박신양의 코믹 활극 '박수건달'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상영 20여 일만에 362만 8044명이 관람했다.

영화계 관계자들은 다소 섣부른 전망이지만 지금의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최다관객(1억1461만명) 기록 달성 등 지난해 거뒀던 성과를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준기자 when@

우주강국 코리아 경제효과 2조4000억

세계 11번째 스페이스 클럽 당당가입 '환호'

30일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항공우주산업이라는 미래 시장에 진출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다.

30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나로호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날 경우 1조9000억~2조4000억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사체 개발 사업을 통한 연구 개발(R&D) 인력 양성 효과도 4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우주클럽 가입과 경제적 효과' 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우주산업 시장이 현재 2조1679억원에서 2020년 5조4685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위성 서비스·위성 제조·발사 산업 등 위성 산업과 방위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은 것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다. 김하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원은 "우주기술 개발 전략 수립과 효과적 추진을 지원할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며 "우주기술 개발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우주정책연구센터(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나로위성 초속 8㎞로 하루 14바퀴씩 지구 돌며 관측

나로과학위성의 정상적인 궤도 진입과 노르웨이 스발바드르 기지국과의 비콘 신호 교신으로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의 발사 전 과정이 성공했다.

30일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 따르면 나로과학위성은 발사 뒤 9분 후(540초)에 나로호 상단과 분리돼 지구 주위를 지상으로부터 가깝게는 300㎞ 멀게는 1500㎞ 높이에서 초속 8㎞의 속도로 타원 궤도를 유지하며 우주를 관측하게 된다.

이인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장은 이날 발사 직후 "위성의 궤도는 지구와 300~1500㎞ 거리에서 타원형으로 80도 각도로 돌게 설계됐다"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성은 실제 297.64㎞와 1204.62㎞로 정확하게 들어갔고, 궤도 경사각은 80.30도이며 속도는 초속 8.04㎞로 이 정도면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완벽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상률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장은 "발사체는 이미 성공한 것이며 위성과 지상 기지국과의 교신도 성공했다"며 "위성은 상태에 이상이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안전모드에 들어가도록 설계돼 있고, 약간의 오차가 생겨도 수정·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성은 향으로 우주 방사선과 이온층을 측정하고, 태양에서 발생하는 우주폭풍이 지구의 통신기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게 된다.

또 반작용휠과 펨토초레이저, 영상센서 등 국산화 부품들의 우주공간에서의 성능 검증 등의 역할도 함께 맡는다.

/배동호기자 eleven@

만찬 즐기는 꿀벌 최고기온 5월 영도 30일 꿀벌 한 마리가 경남 거제시 학동 동백림 군락에서 꿀을 따기 위해 동백꽃 사이를 파고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낮 13도 포근

31일 낮 최고기온이 13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8도에서 13도를 보일 전망"이라며 "이는 평년보다 8~10도 높아 3월 중순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30일 내다봤다. 다만 31일 오후부터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밤늦게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측됐다.

/정은혜기자 ari@

어린이집 의무위반 기업 공개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긴 기업과 공공기관 명단이 처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61곳의 명단을 31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www.mw.go.kr)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이행 기업 중에는 기아자동차, 신한금융투자, 한컴 등의 유명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장윤희기자

'수도권 출근 30분만에' GTX사업 연내 스타트

올해 안에 수도권 어디서든 30분 안에 도심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시작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하심층철도 개발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하 40m 이상의 깊은 땅속에서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교통난의 해결책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GTX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선다. GTX가 지하 40~50m 깊이의 터널 속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국내 최초의 지하심층철도 개발사업이기 때문이다.

/김자영기자 lazyhand@

전통시장 주변 딱지 안 떼요 30일 서울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 주변에 주차 허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설을 맞아 다음날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380개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 /연합뉴스

단독주택 최고가 53억·최저가 79만원

전국 공시가격 2.48% 상승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전년 대비 2.48% 상승했다. 전년 상승률 5.38%보다 2.9%포인트 줄었다. 경기침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18만9947가구 가격을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398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 상승률 5.38%에 비해 2.9%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수도권 2.32%, 광역시(인천 제외) 2.5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2.77%로 지방권 상승폭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제, 울산 동구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 상승률이 높았고 올해 지역 간 가격 불균형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 상승폭은 경남 거제시가 20.36%로 가장 컸다. 울산 동구(11.29%), 울릉군(10.25%), 경남 창원 성산구(9.55%), 창원 의창구(7.78%)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최고가 표준 단독주택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대지면적 2089㎡, 연면적 566.55㎡ 규모 2층 주택으로 53억7000만원이다.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 송이리 소재 대지면적 99㎡, 연면적 26.3㎡ 규모 주택으로 79만7000원에 불과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등에서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김자영기자 lazyhand@

70만원대 갤럭시 팝 출시 – 4.65인치 화면에 9.05mm 슬림 디자인 삼성전자는 젊고 트렌디한 소비자를 겨냥한 감각적인 색상의 스마트폰 '갤럭시 팝(SHV-E220S)'을 SKT를 통해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4.65인치 화면의 '갤럭시 팝'은 흰색 모델을 시작으로 체리 오렌지색 등 다채로운 색상을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다. 두께는 9.05㎜로 얇고 무게도 133.5g으로 가볍다. 제품 출고가는 70만원대 후반이며 구매자에게는 전용 젤리커버를 한정 수량 제공한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 더블스코어 승리

올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38% 전망 · '혁신부족' 애플은 18%로 하락

올해 삼성전자의 덩치가 애플보다 2배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4, 갤럭시노트3 등의 출시가 예정돼 있지만 애플은 스티브 잡스 사후 혁신이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 고전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는 3억2040만 대로 애플 1억5900만 대의 2배가 넘었다.

뒤이어 LG전자(4900만 대), 화웨이(4270만 대), ZTE(3770만 대), HTC(3620만 대), 소니에릭슨(3400만 대), RIM(3020만 대), 노키아(2660만 대) 순이었다.

그 외 제조사의 스마트폰 출하량 7510만 대를 합해 올해 전 세계 시장에는 8억5000만 대의 스마트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6억5900만 대)보다는 29.0% 증가한 것이다.

시장점유율로는 삼성전자가 37.7%에 달했고 애플이 18.7%, LG전자 5.6%, 화웨이 5.0%, ZTE 4.4%, HTC 4.3%, 소니에릭슨 4.0%, RIM 3.6%, 노키아 3.1% 등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2010년에 8.0%로 애플(15.9%)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2011년 19.9%로 급증하며 애플(19.0%)을 앞질렀다. 지난해에는 32.2%로 애플(21.0%)의 1.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져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 39.5%로 커져 애플(17.0%)의 2.3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하루 5번 긴급 공짜주유

메리츠화재 출동때마다 3ℓ 넣어줘 으뜸

올 겨울 유독 심한 추위와 폭설로 고생했던 자동차 운전자들의 '걱정'을 메리츠화재가 가장 잘 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짜 긴급 출동 주유 서비스를 하루에 다섯 번까지 제공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긴급 출동 시 고객에게 공짜 주유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간 5차례 3ℓ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 공짜 주유만 놓고 보면 메리츠화재가 가장 친절했다. 타사가 연간 5회라도 하루 한 번만 허용하는 데 반해 메리츠화재는 하루에 5회 모두 쓸 수 있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하루 1회 서비스는 외진 곳, 시골길 등에서 비현실적이다. 고객 서비스를 최선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연간 횟수 5회를 하루에 모두 쓸 수 있도록 됐다"고 밝혔다. 한편 에르고다음다이렉트는 하루 1회에 한해 휘발유는 3ℓ, 경유는 5ℓ를, 삼성화재도 1일 1회에 한해 최대 3ℓ씩 5번까지 공짜 주유를 받을 수 있다. /김지성기자 sjy@

이젠 담배도 '강남스타일'

캐나다서 '강남' 담배 출시

싸이의 '강남스타일' 인기에 힘입어 캐나다에 '강남 담배'가 등장한다.

30일 캐나다 원인 담배회사 CT&G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동포 38명은 다음달 15일 버지니아 블렌드 타입의 담배 'Gnangnam(강남)'과 'c38(주주 숫자를 뜻함)', 'MIDAS(마다스)'를 출시한다.

이들은 담배 이름을 원래 'Daebak(대박)'이라고 지었지만 싸이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을 본따 'Gangnam'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담배는 먼저 온타리오주에서만 판매되고 내년부터는 밴쿠버와 퀘벡주 등 캐나다 전역과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에 수출될 전망이다.

다음달 출시되는 담배 'Gangnam(강남)'과 'c38(주주 숫자를 뜻함)', 'MIDAS(마다스)'

/장윤희기자 unique@

애플 손 들어준 배심원 평결 뒤집혔다

美법원 "삼성의 특허침해 고의 아니다" 판결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또다시 판정승을 거뒀다.

미국 법원은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 드레스(다른 제품들과 구분되는 외형이나 느낌)'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단이 이전에 평결을 하면서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액 증액 요구도 기각

고 판사는 아울러 배상액을 늘려달라는 애플 측 신청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이와 함께 삼성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 측 요청도 거부했다.

비록 특허 침해 평결 자체가 뒤집어진 것은 아니지만 삼성 입장에선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고 판사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최대 3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약 1조1300억원)를 지급하라는 배상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기업들 설연휴 3.5일 쉬고 상여금은 121만원

올 설 연휴에 기업들은 평균 3.5일 쉬고 상여금은 121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평균 휴일 수는 지난해보다 0.5일 줄어든 3.5일로 집계됐다.

법정공휴일만 3일을 쉬는 기업이 50.2%로 가장 많았다. 4일(35.9%), 5일(7.3%), 2일 이하(5.3%), 6일 이상(1.3%) 등 순으로 조사됐다. 설 상여금 지급을 계획한 곳은 72.3%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75.8%에 비해 3.5%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76.7%, 중소기업 71.8%가 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성기자

밥·빵 좋아하면 지방간 위험 증가

빵이나 밥을 많이 섭취하면 지방간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탄수화물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란 음주량이 많지 않은데도 간의 지방량이 5% 이상 쌓이는 질환으로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과 연관이 있다.

지난해 식약청 연구사업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률은 지난 2004년 11.5%에서 2010년 23.6%로 증가했다. 이 조사에서 탄수화물 섭취량 하위 33% 집단과 상위 33% 집단을 비교한 결과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은 집단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이 남성에서 70%, 여성에서 무려 280% 더 높게 나왔다.

일반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지방을 많이 섭취할 경우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도 간에 지방이 쌓일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전효순기자 hsjeon@

일본 혼내주는 아이디어 피켓 제105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정기집회가 열린 30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80> 글·그림 박상철

야당 법사위원 "MB특사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한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특사를 "법치주의를 파괴한 역사상 최악의 특사"로 규정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법사위원장(민주통합당)은 "개정된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나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사퇴로 사면심사위가 8인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특별사면안이 통과됐다"며 "법적 하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며 법무부에 사면심의서 공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이날 박 위원장 대표 발의로 특사 요건을 강화한 사면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김유리기자

2월 국회 언제쯤 김기현(새누리당 왼쪽) 우원식(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개회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흡 거취 인수위 몫"

청와대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에 공을 넘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한 인선"이라며 "청와대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인수위나 여당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선을 긋는 발언이다.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청와대가 1순위로 추천한 후보자 대신 이 후보자를 '낙점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결자해지의 몫을 박 당선인에게 돌렸다. /김유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영익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마케팅 국장	김관철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658-2100
독자센터	(02)721-9862

연금복권520 제83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 20년	1조	227721
		3조	902524
2등	1억원	1등의	각조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405830
4등	100만원	각조	04372
5등	2만원	각조	269
6등	2000원	각조	70, 78
7등	1000원	각조	7, 0

5일 벼락치기 가능할까

새 내각인선 내달 5일 전 끝내야 순조로운 정부 출범 가능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새 정부 내각 인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주 초까지 국회에 총리·장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다는 내부 시간표가 있었으나 이물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총리·장관 인선 일정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는 지난 20일, 장관 후보자는 다음달 5일까지 발표해야 한다.

또 국무위원 후보자를 총리 후보자가 추천하도록 한 대통령직인수위에관한법률도 고려 대상이다. 박 당선인이 내각 인선을 주도하더라도 총리 및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날 현재 대통령 취임일까지 26일이 남은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모든 법적 조건에 맞춘 인선 일정을 고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직은 유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무분과 국정 과제 토론회에 김용준(오른쪽)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속 인선에서는 청문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한 '꼼꼼한 검증'이 요구돼 인선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도 겹쳤다.

박 당선인은 총리와 장관 후보자 18명 중 한 사람이라도 결격 사유가 불거져 '낙마'로 이어진다면 '박근혜 내각'이 결원 상태에서 시작할 공산이 크다. '낙마 내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는 것도 새 정부 출범에는 부담이다.

하지만 조각을 다음주 안에만 마무리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애초 역산한 인선 일정은 인사청문회 소요 시간을 최장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위한 서류 제출에 2~3일, 의원실 검토 작업에 일주일 안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남은 열흘 안에 인사청문회를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새누리 이제야 "밀봉인사가 문제"

"사전검증 시스템 필요"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지적이 뒤늦게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인사시스템 개선, 박 당선인과 당의 소통 강화 필요 등 의견이 이어졌다.

황우여 대표는 "인사청문회가 지명자의 능력과 꿈의 크기를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사전에 비공개적으로 (검증)해서 (결격 사유가) 잘 걸러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병역 문제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서류 검증만으로도 걸러질 수 있는 사안인데 당선인 측에서 사전 검증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밀봉 인선'의 폐단을 극복할 방안으로는 사전 여론검증 방식이 제시된다. 인사 후보군의 3~5배수 명단을 미리 노출해 언론과 여론의 검증을 받는 방식이다. 역대 정권이 주로 사용했다. 인수위나 비서실 내 가칭 '인사검증단'이나 '인사검증TF(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조각 대상에 대한 공식적인 인사검증을 하는 방식도 제기된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들은 "각 당선인이 현재 다양한 인사 검증 방안에 대한 제언을 경청하고 있다"며 "박 당선인이 장단점을 파악해 선택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21세기형 기업가 육성의 선두 주자!
경영학부과정에서 uMBA까지 완벽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갖춘 경영학과! 망설이지말고 도전하십시오.
숭실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201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1 직장인 개인사업자 주부 전문대졸업(예정)자 월 수입료 20% 감면 (입학후 1년간)
2 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경영 전문가 육성
3 기업가정신을 갖춘 창업기업가 육성
4 국내 최초 단기 온라인 MBA 과정을 개발 운영하는 학과
5 졸업 후에도 평생 전공과목 무료 수강으로 A/S
6 베트남 인져니어링 월로힐 대학과 온라인 콘텐츠 교류
7 우수 교수 초빙(숭실대학의 교류 외부 석학 기업체 연계)
201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안내 2013. 1. 29(화) ~ 2. 16(토)
입학 02) 828-5301 http://go.kcu.ac 학과 02) 708-7821 http://ven.kcu.ac

'뼈째먹는 2013년 여수햇참굴비'
80+20마리 추가 3만9900원
오늘만 특별할인 300박스 한정판매
굴비전문기업 (주)은정은 100% 국내산 '2013년 뼈째먹는 여수햇참굴비'를 오늘 300박스 한정 할인 판매한다. '뼈째먹는 여수햇참굴비'는 가장 맛이 좋은 제철인 요즘 남해안에서 잡은 참조기로 어획 즉시 산지 급속냉동 처리하여 신선도와 맛이 살아있다.
여수수협에서 직수매한 100% 국내산 참조기이며 남해안 법성포에서 1년 이상 저장하여 소금의 수분이 완전히 빠진 간수(사)에 천일염으로 염장을 하여 굴비의 제 맛을 내고 해동 후 즉시 요리가 가능하여 맛이 뛰어나다.
시중의 많은 조기는 부세조기, 백조기라 조기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소금물에 담그기만 하는 물염장 굴비는 맛도 없고 쉽게 살이 부서진다.
'영광 법성포식 염장기술'은 1년 이상 숙성 간수를 뺀 천일염만을 사용해 알뜰 아가미, 입 등에 촉촉 뿌려지는 소금이 굴비의 수분을 빼고 적당하게 간이 배게 하는 핵심기술이다.
100마리(16~18cm)를 3만9900원, 50마리(19~20cm)를 3만9900원으로 오늘만 선착순 300박스 할인 판매한다.
전화(080-030-4949)로 주문하면 무료배송 해준다. www.woojahop.com

더 할인받고, 더 행복하기

새 출발, 새 신발

· 학생할인 추가 10%

· olleh kt 회원 추가 5%

· Free 추가 5%

이 모든 할인 혜택 합쳐서 최대 20%

2월1일 부터~

[행사기간 2013.2.1 ~ 2013.3.3]

KakaoTalk

ABC마트 고객상담실 Tel. 080 701 7770 www.abcmart.co.kr

대법 "신체접촉 없어도 추행 성립"

밀폐 공간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 없이 행한 음란 행위도 추행 행위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탄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C(2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C씨는 2010년 9월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자아이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고 1시간쯤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세 여자아이를 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유리기자

후진국병 결핵 심상찮다

지난해 신규환자 4만명 돌파 사상최고… 국내 최다 감염병에

우리나라 최다 감염병은 결핵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핵 신규 환자는 4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30일 2012년도 법정 감염병 감시 잠정 결과를 내놓으며 지난해 국가 감염병 감시 시스템에 신고된 감염병 환자는 9만3119명으로 2011년보다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184명꼴이다.

질환별로는 결핵 환자가 4만126명(43.1%)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결핵 통계를 작성한 2001년 이래 신고 환자 수가 4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결핵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고 환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휘발유 뿌린 뒤 라이터로 — 버스차고지 방화 피의자인 전 버스기사 최모씨가 30일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버스차고지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핵에 이어 수두 2만7770명(29.8%), 쯔쯔가무시증 8632명(9.3%), 유행성이하선염 7541명(8.1%), B형간염 3342명(3.6%) 순으로 감염 비율이 높았다. 상위 5대 감염병은 지난해 전체 감염병 발병 건수의 94%를 차지했다.

급성 감염병 환자는 5만2124명으로 2011년에 비해 10.5% 줄었지만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B형간염, 일본뇌염, 성홍열, 쯔쯔가무시증, 뎅기열 등 질환 12종은 증가했다.

특히 백일해는 고교 집단 발생의 영향으로 2011년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다. 반면 홍역은 철저한 질병 감시와 높은 예방접종률 유지로 92.6% 감소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자료 보완을 거쳐 6월에 법정 감염병 감시 확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한세대 2년 연속 등록금 인하

한세대학교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인하했다.

한세대(총장 김성혜)는 지난 25일 학교 대표와 학생 대표, 외부인사 등 8명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올해 등록금을 2% 인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세대는 2009년과 2011년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지난해에는 6.2% 인하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고통을 경감하는 데 앞장선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성혜 총장은 "지난해 등록금 인하에 이어 2년 연속 등록금을 낮춘 것"이라면서 "재정 부담이 크지만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동참하고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아빠가 아니라 고문기술자

9살 아들 툭하면 때리고 "세숫대야에 머리 담가라"

아홉 살 아들에게 폭력과 물고문을 일삼은 아버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A(36)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부인과 별거하면서 지난해 초 아들 B(9)군의 양육을 맡게 됐고 같이 산 지 얼마 안 되어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B군이 책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코피를 터뜨렸다.

이후에도 A씨는 아들이 숙제를 하지 않거나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물을 받은 세숫대야에 머리를 담갔다 빼는 물고문까지 자행했다.

최근에는 새벽녘 술에 취해 들어와 B군의 몸과 머리를 때려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오른쪽 뺨의 10㎝가량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어 119구급대가 출동하기까지 했다.

A씨의 만행은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직전 구속했다.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B군은 물만 봐도 기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윤희기자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서울시가 6월 이상 장애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110곳에 129명의 '장애아 보육도우미'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30일 '장애아동 통합 보육환경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부족한 장애아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보육도우미 129명은 장애 아동의 활동 보조와 보육교사의 수업 준비를 돕는 역할을 한다.

보육도우미를 채용한 어린이집은 구청에 확인서를 제출해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아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곳에는 경사로와 화장실 안전바 등 편의시설 설치비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illegible]기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체험프로그램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

1.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13. 1. 7 ~ 2. 5(30일간)
- 접수기간 : 2013. 1. 30 ~ 2. 5(7일간)
- 참가자격 : 전 국민 누구나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인터넷(이메일) 접수
  - 수신처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부 문화행사팀 (☎061-744-5851) (540-701) 전남 순천시 새실내막길 17 여성회관 3층
  - 온라인(이메일) : 2013expo@naver.com
- 제출서류
  - 기획서 1부(PPT 10Page 이내 또는 한글워드 10Page 이내)
  - 참가 신청서 1부(www.2013expo.or.kr 양식 다운)
  - * 자유양식 파워포인트 또는 한글워드로 작성 후 제출
  - * 애니메이션 효과, 동영상 삽입 금지
- 공모부문
  - 정원, 자연, 환경을 소재로 정원박람회장 내에서 운영가능 프로그램
  - 관람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재미를 높일 수 있는 이색 체험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장소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내

- 상장 및 상금
  - 상장명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장
  - 상금 : 총 [illegible]만원

구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시상내역	상금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10만원
	명	1명	2명	3명	15명

2. 심사 및 발표
- 심사기준 : 독창성, 실현가능성, 흥미도, 관객유입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심사 및 발표 : 자체 심사위원을 구성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2013. 2. [illegible](예정) www.2013expo.or.kr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공모작이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표절 및 저작권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에도 수상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응모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응모작의 저작권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귀속
- 제세공과금 당첨자 부담(제세공과 후 지급)

구청소식

강서구,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다음달 5일부터 이틀간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산·상주·강릉 등 8개 시·군의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10~3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곡식류와 제수용품을 비롯한 224개 품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하며 무료 시식 코너도 운영된다. 문의 02)2600-6286 (지역경제과)

성북구 '커뮤니티 사례집'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주요 성과와 시행착오를 담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례집 '아파트, 이웃을 만나다'를 발간했다.

공공기관의 성과보고서 방식을 탈피했다. 대신 아파트 옥상 텃밭·작은도서관·장난감 도서관 만들기 등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소감과 시행착오 등을 수필 형식으로 담아 읽는 맛을 더했다.

7·9급 10% 민간경력자로

서울시 올해부터 채용…전문직위 배치해 장기 근무

'키높이' 하로봉? 30일 부산지검의 한 수사관이 하로봉을 신발 밑창에 숨기는 수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부산지검 강력부는 7만2200개의 투약할 수 있는 히로뽕 2.16kg 밀반입 일당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7·9급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시 10%가량은 민간 경력자를 대상으로 뽑는다.

또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 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관제도를 통해 2020년까지 2000여 명의 전문관을 양성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채용된 민간 경력자는 전문직위에 배치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장기 근무하게 할 계획으로 올해 우선 국내외에서 25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채용 시험은 필기와 면접을 함께 보며 필기시험은 1차 선택형, 2차 논문형으로 나뉜다. 면접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개인 발표, 직무능력 검증 등 다단계 심층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면접 단계에서는 지원자의 필기시험 성적, 학력 등의 개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보다 많은 지원자를 검증하기 위해 면접 대상을 기존 110%에서 130%로 확대하고 면접 시간도 30분 이상으로 연장한다.

채용 시 지원자가 본interest 경로를 설계하도록 전환하고, 영어 면접도 행정직렬뿐만 아니라 모든 직렬로 넓히기로 했다. 또 창의성과 봉사정신 검증을 위한 인·적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재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1인당 직접교육비를 121만7000원에서 내년까지 134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은호기자 eleven@metroseoul.co.kr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의료서비스 만족은 높이고 간병 부담은 낮춘 '환자안심병동' 운영

(보호자 없는 병동)

서울시는 간호·간병 부담에 힘겨워 하는 서울시민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의료서비스 만족은 높이고 간병 부담은 최소화한 '환자안심병동'을 운영합니다.

"서울의료원이 직접 관리·운영하여 믿음을 주는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편의를 위한 '환자안심병동'

- 대 상: 환자의 중증도를 의사가 판단,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
- 이용기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간병비 무료(최대 15일까지, 상담 후 연장 가능)
- 시행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_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대표번호 02)2276-7000 www.seoulmc.or.kr

서울의료원 180병상 간병인 불필요

3월부터 '환자안심병원'

서울의료원이 간병인이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운영된다.

서울의료원은 3월 초까지 전체 466개 다인 병상의 39%인 180병상을 보호자 없이 운영하는 환자안심병원으로 만든다고 30일 밝혔다.

환자안심병원에서는 간호사가 다인 병상의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기 때문에 환자가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입원 생활을 할 수 있다. 추가 비용이 없어 한 달 200만원 수준인 간병료가 절약되는 셈이다.

시민 누구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환자안심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eoulm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276-7000 /최승현기자 [illegible]

택시 카드결제비율 50.6%

서울에서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이 지난해 50.6%로 절반을 넘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택시요금은 모두 1조30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6% 늘었다.

카드결제기가 도입된 2007년 카드결제율이 3.5%에 불과했지만 매년마다 4~6%포인트씩 지속적으로 늘었다.

정욱 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안심 홈페이지(www.taxiansim.com)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카드 선승인을 통해 택시 이용시간과 이동 경로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건설기계정비 교육생모집
■교육과정: 건설기계정비 (굴삭기, 지게차 운전 포함)
■교육기간: 2013. 2. 27~7. 26(5개월)
■모집기간: 2013. 1. 31(목)~2. 15(금)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 1부
- 구직등록필증 …… 1부
■특전
- 교육비 무료, 기숙사·숙식제공
- 훈련수당지급, 취업알선
■문의처
두산인프라코어(주)기술교육센터
☎031) 400-2130~7 / FAX. 031) 400-2130
www.doosanedu.co.kr
두산인프라코어

국가공인자격
빌딩경영관리사
한국산업교육원
제37회 빌딩경영관리사 시험대비 수강생 모집
www.okoin.co.kr
서울국제직업전문학교
02) 842-9400, 842-7677

중앙SUNDAY,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일요일 아침 배달되는 고품격 신문입니다

저희 독자는
기업 CEO와 간부들 대학교수와 초 중 고 교사, 작가와 예술인 고위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법조계 인사 전문직 종사자 등 입니다
또 사람과 미래를 생각하고 지식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구독층이 특화된 것도 일요일 배달도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중앙SUNDAY는 '열린 보수'를 지향합니다
보도 기준은 좌파나 우파냐가 아니라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일 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통찰력 역사와 과학 중시, 종교와 예술 존중,
인문학에 대한 열정이 중앙SUNDAY의 편집 방침입니다

수많은 오피니언 리더가 중앙SUNDAY의 열렬한 편입니다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월 구독료	1년
선납(일시납)	-	50 000원
자동이체	5 000원	(60 000원)

중앙일보 중앙SUNDAY

• 구독문의 1588-3600 • 지방광역시는 월요일에 배달됩니다

(광고)

73세 노인이 병원까지 다녔다면… 보험가입 된다? 안 된다?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080-590-8585

61~75세도 가입 가능한 100세 암보험

나이 들어 암 보험 들기 어려웠던 고령자들을 위한 희소식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080-951-8585

라이나생명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3억여원 보장!

1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50% 지급, 고의적 사고 및 가입 2년 이내 자살은 제외

5년 만기 후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080-332-8080

또! 외줄 위를 걸은 남자

외줄타기 곡예사 닉 왈렌다가 2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라소타의 고속도로에 설치된 줄 위를 걷고 있다. 왈렌다는 상공 60m 위에서 안전 밧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아찔한 외줄타기를 선보였다. 왈렌다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너는 데 성공했다. /AP 연합뉴스

스모그 지옥 중국에선 요즘

캔공기 판매

'괴짜' 억만장자 천광뱌오 티베트 등 공기 담아 판매

"스모그 지옥" 중국에서 최근 특수 마스크 등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캔 공기"를 판매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억만장자" 자선 사업가 천광뱌오는 5위안(약 870원)짜리 캔 공기를 판매하는 이벤트에 나섰다.

이 제품은 청정한 티베트, 탈공업화된 대만, 초기 중국 공산당의 혁명 성지 옌안(延安)지역 공기의 풍미를 담았다.

천광뱌오는 중국의 공기질이 크게 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캔 공기 아이디어는 더 이상 환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당장 환경보호에 나서지 않는다면 20~30년 뒤 우리 자손들이 가스마스크를 쓰거나 산소 탱크를 갖고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천광뱌오는 중국 10대 자선가로 꼽히며 춘제(설)를 앞두고 대만 전역을 돌며 5억 대만달러(약 200억원)를 현금으로 뿌리는 등 요란한 이벤트로 유명하다.

/조선미기자 seoami@metroseoul.co.kr

폭죽 쓰지마

환경전문가들 "오염방지" 정부에 춘제 금지령 건의

중국에서 이번 춘제(설)에는 중국인의 최대 오락거리인 폭죽놀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최근 중국과학원,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의 환경보호 전문가들은 춘제 때까지 스모그가 지속되면 폭죽 금지 및 제한을 포함, 공기 오염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폭죽으로 인한 공기 오염이 상당하기 때문에 폭죽놀이를 허용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다.

베이징에서는 1월에 고작 5일을 제외하곤 스모그가 계속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호흡기 환자가 급증하고 고속도로가 차단되는가 하면 항공편 결항도 속출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지난해의 경우 폭죽을 집중적으로 터뜨린 춘제 전날 밤 베이징 주요 지역의 오염도가 평소의 10배 가까이로 치솟았다"며 "심각한 대기 오염을 고려해 폭죽놀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폭죽놀이를 전통 풍습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시민들이 공기 오염을 우려해 스스로 폭죽놀이를 자제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가 나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것이다. /조선미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3세아들 목에 개줄 매단 中엄마 논란
- 힘차게 누르면 스트레스 퇴치되는 공

2013년 새해에는
자원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해

꼭! 신문용지와 종이박스를 분리해주세요~

신문용지

종이박스

신문용지 묶음에는
책, 잡지, 복사지도
환영합니다!

중고차 못 미더워 구매 즉시 정비? 바가지 쓰기 일쑤

중고차를 사자마자 정비소로 가는 건 과잉 소비의 지름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1위 중고차 업체 SK엔카는 30일 중고차 구매 뒤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게 차를 받은 뒤 정비소로 향하는 행위다. 속아서 산 부분은 없는지, 성능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다수 중고차 구매자가 흔히 범하는 실수다. 소비자가 "(중고차를 샀는데) 상태를 봐달라"고 하는 순간 정비 업체에서 소유자가 현재 상태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과잉정비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정비소에 갔다면 "엔진오일 교체해야 되는지 봐주세요" 등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주는 것이 요령이라고 SK엔카 측은 설명했다.

해당 브랜드의 AS센터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SK엔카는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주행거리 조작·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을 표기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부자노인-빈곤노인 격차 '최악'

국내 65세 이상 연령층 지니계수 OECD서 3위

사회복지 시스템 부실, 소득 재분배 미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우리나라 노년층의 소득불평등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이유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OECD국가 중 멕시코와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 전국 조사 10년 만에 '최고치'

30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OECD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은퇴 연령층 가구(2인 이상 전국가구)의 2011년 지니계수는 경상소득 기준으로 0.419, 시장소득으로 0.505, 가처분소득으로 0.418로 각각 집계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반정호 연구원은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에 대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런 수치는 지니계수 조사가 도시가구에서 전국 가구로 확대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반 연구원은 "65세 이상 세대의 지니계수가 소득불평등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0.400을 모두 넘어서고 있어 노년층의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지니계수는 OECD에서도 가장 높은 그룹에 속했다. OECD가 집계한 2000년대 후반 65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는 0.405으로 34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노년층 지니계수가 높은 국가는 멕시코(0.524)와 칠레(0.474)뿐이며 OECD 평균은 0.299였다.

더구나 한국에는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지 못하는 다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2010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2000만 명 중 약 500만 명(25.0%)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 예외 상태다.

◆ "노인 일자리·기초연금 늘려야"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가입시켜야 하지만 이미 고령자가 된 현실에서는 복지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며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기초노령연금 등 혜택이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기자 kzyhand@metroseoul.co.kr

지적장애아 위한 스페셜 게임 엔씨소프트문화재단이 '2013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지적 장애아동을 위한 게임소프트웨어를 선보였다. 29일 평창 부스에서 올림픽 참가자들이 게임을 시연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제공

LG유플 '실속없는 LTE장사'

1조7000억 마케팅비 탓 작년 영업이익 54% 감소

LG유플러스(U+)는 LTE 경쟁으로 비용을 많이 지출한 탓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1268억원으로 전년보다 54.6%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59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84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던 2011년과 달리 적자로 돌아섰다.

이 회사는 실적 부진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마케팅비용으로 지난해 1조7544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2011년 1조5136억원보다 15.9% 많은 규모다.

하지만 LGU+는 LTE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무선 서비스 수익이 증가해 총 매출은 전년보다 18.7% 늘어난 10조9046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매출 10조를 달성한 배경에 대해 회사 측은 "LTE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유선 시장에서 070플레이어와 U+TV G 등으로 선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31일 영업정지에서 풀리는 LGU+는 야심작인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와 신규 스마트폰 등을 내세워 영업정지 기간에 겪은 타격에서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박성훈기자

ASUS는 Windows 8을 권장합니다

강력한 성능
놀라운 사운드
스타일리시 모빌리티

Intel, the Intel Logo, Intel Inside, Ultrabook, Intel Core, and Core Inside are trademarks of Intel Corporation in the U.S. and/or other countries.

구본형의 그리스인 이야기
구본형 지음/생각정원 펴냄

구본형 작가는 가장 아름다운 신화로 '물가를 은자린 후 모험을 떠나 소명을 완수한 페르세우스'를 꼽았다

소명 찾아가는 자가 '영웅'

'변화경영' 전도사인 구본형이 역사와 시詩의 그리스… 그리스인 이야기'를 냈다 "성공한 이들도 월생을 바쳐서 되고 싶은 것들어 따로 존재하고 … 그렇다면 그리스를 읽어야 했다"고 말하는 그를 15일 서울신문로 메트로신문 사옥에서 만났다 구본형은 "자기경영이라는 것은 신화를 떠날 수 없다"며 "새로운 운명을 만나서 미지의 삶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다"고 했다

▶ 그리스란 무엇인가…

▶▶ 그리스는 사실 로마나 이탈리아에 비하면 유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역사적 유적지로서의 그리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가 존재한다 그리스신화는 텍스트로 최고다 오래되고, 고도의 전개적인 그리스 비극 작가들을 통해 이야기 자체가 풍부해졌다 자기경영의 강력한 축 하나가 더 있어야겠는데 '네 운명' 거기에 소명을 찾아가는 것이 신화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다 (이 책을 내고 나서 그리스를) 시리즈로 쓰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신화가 역사를 만나는 경계선에서 이뤄지는 시리즈일 것 같다…

화제의 작가 - 구본형

내가 아닌 삶=치유 없는 삶
우리 모두 '별'이라는 생각이
평범에서 벗어나는 첫 단계!

▶ 영감을 준 신화 속 인물은

▶▶ 판도라… 최초의 인간 여성이다 왜 희망이 나쁜 것들 속에 있을까 희망이라는 것은 나쁜 것들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희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가장 아름다운 신화 중 하나다 페르세우스다 평범한 소년이 있던 페르세우스는 처음엔 별 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다 자기 운명을 알게 되고 모험을 떠나게 되고, 메두사 목을 치고, 안드로메다와 사랑을 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구하게 된다 중요한 모티브이면서 아름다운 이야기의 전형이다

▶ 각 장마다 '시만은 … 한다'라는 족자를 넣었다

▶▶ 각지 하나마다 나올대로 해석을 하고 싶었는데, 작가로서의 미지의 페이스는 시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시인이라는 것이 삶 자체를 시처럼 사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시를 써서 집어넣었다

▶ 모험이 궁극적인 메시지인가

▶▶ 모험보다는 별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신화 속의 영웅처럼 미지의 세계에 뛰어들 수 없다 내가 아닌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기의 운명을 알고, 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소설가 알철우 … 생각이 났다 '그 섬에 가고 싶다'에서 내가 아는 한 처음으로 "우리는 모두 별이다"라고 선언했던 작가다 이날 변화경영사상가 구본형도 "자기가 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평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공고륙다

/글 사진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 kr

화제의 책

미래가 보인다-글로벌 미래 2030

국제미래학회 지음/박영사 펴냄

한국 맞춤형 미래 맵, 피부 와닿네

국제미래학회가 전문 영역별 미래예측서를 선보였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래가 보인다 글로벌 미래 2030'의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저술 총괄을 맡은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학술위원장은 "지금까지 미래학은 해외 서적을 번역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며 "3년 전부터 우리에게 와닿는 '한국 맞춤형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출간 의의를 밝혔다 이어 안 위원장은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문가의 식견을 스스로 익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산업적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크게 6가 부문 총 26개 전문 영역의 미래를 다루고 있다 6개 부문은 미래 트렌드 및 아시아와 과학기술의 미래를 담은 '미래 메가트렌드' 부문과 기후 에너지와 세계 경제·경영의 미래를 담은 '경제와 경영' 부문 한국 문화 및 디자인 콘텐츠, 종교의 미래를 담은 문화와 콘텐츠 부문 미디어와 언론 및 정보통신, 스마트 산업의 미래를 담은 '미디어와 ICT' 부문, 정부와 미래도시 및 교통의 미래를 담은 '정부와 도시' 부문 교육과 의료 산업 및 인간의 몸의 미래를 담은 '교육과 의료'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국문으로 박영사에서 발간된 이 책은 영문과 니가단 출판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미래학 전문가뿐만 아니라 미래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청소년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예견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쉽게 저술된 것이 특징이다 또 교수진을 위한 강의안을 준비해 대학의 교양과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성기자

새로 나온 책

죽기 전에 논어를 읽으며 장자를 꿈꾸고 맹자를 배워라 2

김세중 엮음/스타북스 펴냄

'죽기 전에' 시리즈는 … 동양의 대표 고전 논어 장자 맹자 각각의 명언들이 탄생한 배경과 역사적 … 밝히고 이와 관련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를 소개함으로써 다시 한번 명언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그에 얽힌 선별된 이야기 속에서 삶의 지혜가 잔잔히 가슴을 따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소셜 지知용用활活

이향우 지음/티러지식 펴냄

소셜미게팅 전문가 이장우 박사가 공개하는 SNS의 정복법이다 이 책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돼 있다 SNS를 제대로 이해하고(知) 효과적으로 사용하며(用) 전략적으로 활성화하는 법(活)이 모두 담겨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포스퀘어, 링크드인의 효과적인 사용법에 관한 핵심을 설명한다

10년 후 부의 지도

이상건 류석형 권즈하오 공저/이유정 옮김/라이온북스 펴냄

지정학과 경제학의 관점에서 세계 시장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만 투자에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 흔들리는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정책 하염없이 추락하는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미래 급부상하는 신흥 국가들의 잠재력 투자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 뒤에 숨어있는 각 나라들의 진짜 모습을 알려준다

처음 만나는 심리학

와타나베 요시유키 사토 다쓰야 등저/정영 등 옮김/김선주 감수/율경 펴냄

사례를 읽고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면은 물론 심리학의 탄생부터 분야 성격 그리고 앞으로 발달할 심리학의 미래까지 이론적인 면도 갖췄다 심리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한 책이지만 구성과 내용의 체계성은 전공서만큼 알차다 심리학 입문자를 위해 최대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글을 썼다

20대 고민없는 청춘은 어디에도 없다

김복향 지음/명경북스 펴냄

예나 지금이나 고민 없는 청춘은 어디에도 없었다 자신만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먼저 버릴수록 진짜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다양한 성공의 가치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요즘 20대들은 무엇이 될까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무엇이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까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뜨거운 물 단식의 기적

김홍수 지음/기파 펴냄

기림산방 김홍수 원장의 생생온도건강법을 담았다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비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진정한 건강법으로 무모한 다이어트와 생수단식의 위험성 자신의 몸에 맞지 않은 운동법의 문제점 등을 파헤쳤다 저자 스스로 실천한 2000일 이상의 뜨거운 물 단식 체험을 통해 비만의 근본 원인을 밝힌다

섹스 쇼크

김성 지음/행복에너지 펴냄

성중독 성향이 높은 남녀 참여자들 대상으로 그들의 주관적인 삶의 경험에서 드러나는 성중독 현상들을 발견해내기 위해 충독 일탈 범주 탈출 등 4개의 테마로 본문이 구성됐다 성중독에 관한 불편한 진실들을 구체적이고 진실된 태도로 집중 탐구해 성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진화론-정봉주의 미래 한국 마스터플랜

지승호 정봉주 공저/미래를소유한사람들

정봉주 지승호의 대담한 대담회 정치가 나아갈 방향과 경제민주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남북 문제와 통일에 대한 비전 교육 문제와 한국의 언론 환경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 정치인 정봉주의 철학과 소회까지 대한민국의 현안을 망라했다 1년의 투옥 생활로 쌓아올린 정봉주의 새로운 내공이 어우러졌다

설날 준비도 역시 1등 G마켓입니다

선물은 부담없어야 하고, 배송은 빨라야 한다!

이것이 G마켓이 생각하는 설날 쇼핑의 기준!

기간: 2013.1.14~2.4

무료배송

정직한 한우 1등급 정육세트 1.5kg 57,500원 ▶ **37,900원**

무료배송

매화 도자기 토종꿀 1.2kg 35,900원 ▶ **19,900원**

무료배송

달콤한 반건시 대봉 선물세트 24과 38,500원 ▶ **27,900원**

무료배송

추자도 수협 참굴비세트 20마리 1.7kg 55,000원 ▶ **34,900원**

1월 31일, 오직 G마켓에서만 만날 수 있다! 오늘의 특가 상품

물 맑고 달콤한 신고배 선물세트 5kg 50% 할인 17,900원 ▶ **8,900원**

고소한 견과류 선물세트 3종 41% 할인 24,900원 ▶ **14,700원**

G마켓 전화권 혜택

10%

아이로드 리얼HD 블랙박스 50% 할인 169,000원 ▶ **84,000원**

참살이 파워3봉 안마기 34% 할인 18,800원 ▶ **12,400원**

매일 오전 10시! G마켓에 오시면 더 많은 상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설마켓'을 검색하세요! Gmarket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건설산업-SK건설 첨단학교 기부

스마트 교실 본 사막 아이들 "슈크란, 슈크란" 감사 메아리

"슈크란, SK!"(땡큐 SK!)

최근 국내 건설사가 쿠웨이트에서 벌인 특별한 사회공헌활동이 현지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른바 '스마트 클래스'라 불리는 최첨단 교육 환경을 갖춘 교실을 만들어 지역 초등학교에 기부한 것이다. 특히 이 교실은 쿠웨이트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스마트 클래스로, 현지 언론에서도 뜨거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SK건설은 해외 진출 지역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쿠웨이트 남부 아흐마디 지역의 이븐 마지드초등학교에 스마트클래스를 지어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쿠웨이트에 최초로 개설된 스마트클래스는 90인치의 대형 터치스크린, 프로젝터, 문서 스캐너, TV 등 첨단 교육 기자재를 갖추고 선생님과 학생이 다양하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실이다. SK건설은 스마트 클래스 개설에 총 3만3000달러(약 3500만원)를 투입했다.

현지 유력 언론사들은 "SK건설이 쿠웨이트 역사상 처음으로 스마트 클래스를 설치해 교육 환경 개선에 큰 공헌을 했다. 쿠웨이트 정부도 이를 계기로 모든 초등학교에 스마트 클래스를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박성훈기자

반갑다! 상도엠코타운 잔여분

최근 입주를 시작한 상도엠코타운은 강남권 이주 수요를 흡수하는 소형 아파트로 서울 상도동에 2441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잔여 가구 일부를 특별 공급 중이다.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도보 3분 거리이며 강남, 용산, 여의도에 인접한 주거지다. 또 9호선 노들역, 남부순환도로, 88올림픽대로 등과 닿아있으며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단지 내 입점했다.

특히 단지 내 상현초등학교는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돼 학군수요가 높고, 지하철 7~9호선을 이용해 세화여중·고, 영동고, 경기고 등 명문 8학군과 서울대, 노량진학원가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또 여의도공원보다 넓은 상도근린공원이 단지 3면을 둘러싸고 있어 친환경적이며 단지내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도서관 및 독서실, GX룸 등 입주자를 위한 세심한 부대시설도 돋보인다.

지하3층, 지상 10~18층, 22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기준 59·84·118㎡로 구성된 상도 엠코타운은 현재 전세가가 분양가의 70%선에 형성돼 있다. 문의:02-824-7000 /박성훈기자

대림산업 매출액 28% 늘어 10조원 돌파

대림산업이 지난해 매출액(IFRS 연결 기준)이 전년 대비 2조2652억원(28%) 증가한 10조2533억원을 기록하며 매출액 10조 클럽에 최초로 입성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급증한 것은 2011년 해외에서 수주한 사우디 쇼와이바 2 복합화력발전소 및 폴리텐 쉐브론 정유 공장 등 대형 플랜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연결대상인 대림자동차, 대림C&S, 오라관광 등의 견조한 실적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석유화학사업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폴리부텐과 같은 고마진 특화제품의 판매 증가에 따라 매출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1조3041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성장세를 견인했다.

매출액 증가에 힘입어 2012년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12% 증가한 4893억원을 기록했다.

QR코드는 심심해…컬러코드 뜬다

새로운 마케팅 수단 급부상
감성적 디자인 주목도 높고
기업 아이덴티티 표현 유리

컬러코드가 기업의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컬러코드는 색상 값을 이용한 2차원 바코드로 QR코드와 달리 주목도가 높고 색상 값을 인식하기 때문에 감성적인 디자인을 통해 기업 고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다.

기업 고유의 컬러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앱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텐진시에 문을 연 롯데백화점은 자사 모델로 활동 중인 소녀시대의 페이스 컬러코드를 앞세워 모바일 마케팅을 했다.

윤아, 태연, 유리의 얼굴을 일러스트화해 코드로 제작한 소녀시대 페이스 컬러코드는 롯데백화점의 전단지와 DM에 삽입되는 것은 물론 옥외 현수막 등에 노출됐다. 이를 스캔한 고객은 모바일 스크래치 이벤트에 참가해 푸짐한 경품을 받는 등 자연스럽게 백화점을 알게 됐다.

고용노동부의 '신고해~앱'은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근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컬러코드는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모바일 콘텐츠로 유도해 다양한 재미와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기업어음>

"LIG건설 CP, 그룹 책임"

피해자 집단소송 이끄는 이대순 변호사

LIG건설 명의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29일 LIG그룹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대순 변호사(법무법인 정률·사진)를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에서 만났다.

"100% 승소를 확신한다면 좀 그렇지만 매우 가능성이 높다." 이 변호사는 승소를 자신했다. "형사책임이 확정되면 민사는 거의 책임을 피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이게(LIG건설 CP 발행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는 전체 피해자 800여 명 중 200명 넘게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배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자. 그런 지원에서 좀 빨리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IG건설 CP 사건은 주요 피고자가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31일 3차 공판이 열린다. 형사재판 판결에 따라 피고자는 배상 책임을 갖게 된다. 그런데 피고자와 오너 책임리 관계인 LIG손해보험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오늘 형사 3차 공판 열려
승소 가능성? 99% 자신
배상액 규모 2000억 넘어

이 변호사는 "제가 보기에 이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검찰 공소장을 보더라도 이건 그룹 차원의 문제다. 회사 책임이 틀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판결을 받아내면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회사 차원에서도 듣고 싶은데 볼 따라준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LIG그룹이 오너 일가를 직접 지원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사 판결이 나오면 지급할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이기도 한 그는 10여 년 전에 진로그룹의 법정 관리 사건도 담당했다. "당시에 재벌그룹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자신 있어 하는 배경이다.

이 변호사는 "LIG손보와 LIG넥스원은 지급 능력이 된다. 대주주들이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800억원 정도일텐데,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5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자를 최소 5%로 잡으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2200억원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2000억원이 넘는 소송이다. 피해자나 LIG그룹이나 치열하게 법정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 김지성기자
kizy@metroseoul.co.kr

경상수지 흑자 432억달러 '사상 최대'

지난해 서비스 '흑전' 효과

대한민국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432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외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상 최대의 성적표를 받았다. 15년째 흑자 행진이고 서비스수지는 14년 만에 흑자 전환된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한은이 30일 내놓은 '2012년 12월 및 연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432억5000만 달러로 전년(260억7000만 달러)보다 171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는 종전 사상 최대치인 2009년 327억9000만 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경상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06	'07	'08	'09	'10	'11	'12
141.8	217.7	32.0	328.5	294.0	260.7	432.5

자료: 한국은행

경상수지는 1998년 이후 15년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진 데는 서비스수지의 흑자가 주효했다. 2011년 59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서비스수지는 지난해 26억8000만 달러의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은 줄어들 전망이다. 조용승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대외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 경기가 살아나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이 늘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은 작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그게 지금의 경제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이젠 식사도 던킨에서"

국내 진출 20주년…지난해 매출 무려 3500억
"커피·도너츠 이외 메뉴 비중 점차 늘려갈 것"

던킨도너츠가 새로운 변신을 선언했다. 커피와 도너츠에 머물지 않고 식사와 다양한 음료까지 판매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다.

던킨도너츠는 지난 29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커피 로스팅센터에서 국내 진출 2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커피 앤 도너츠(Coffee & Donut) 콘셉트를 확장한 '이트 앤 드링크(Eat & Drink)' 올데이 던킨(All-day Dunkin) 콘셉트를 제시했다.

정재수(작은 사진) 던킨도너츠 총괄부사장은 이날 "커피와 먹거리 비중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매장 수는 현재 850개에서 오는 2015년까지 980개로 확대하고, 4800억원의 연매출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던킨도너츠는 지난해 매장 수 850개(직영점 150개), 연매출 35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도너츠의 경우 연 1억 개 이상을 판매했으며 커피는 연간 3200만 잔이 팔렸다.

정 부사장은 "지난해 매출의 48%를 차지했던 도너츠 스낵은 2015년에 40%로 줄일 것"이라며 "대신에 지난해 매출의 7%에 그치고 있는 식사 메뉴를 2015년에 1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매출 비중의 45%에 달하는 커피·음료는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던킨은 이미 지난해 선보인 프라페 음료 '던카치노'와 여름에 선보인 롱커버나나 도넛, 그리고 아침 메뉴 매출 신장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던킨도너츠 커피 로스팅센터에서 큐그레이더가 커핑 테스트를 하고 있다.

◆ 식사 콘셉트 매장 연내 120개

커피컵 디자인도 새롭게 바뀐다. 갈색과 흰색으로 나눠 갈색 컵은 라떼와 같은 혼합음료를, 흰색 컵은 아메리카노를 담는 용도로 사용된다. 컵에 새긴 로고는 '던킨도너츠'에서 '도너츠'를 뺀 '던킨'으로 교체된다.

그는 "2월부터 던킨커피의 심플함을 담아 20년 만에 새로운 컵 디자인을 선보인다"면서 "도너츠에 국한되지 않는 더 큰 '던킨'을 표현했는데, 점주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부사장은 "대학가와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식사(meal) 콘셉트 매장을 점차 확대, 올해 120여개의 매장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다양한 푸드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음성=김현자기자 at ***@metroseoul.co.kr

던킨도너츠의 새로운 컵 디자인

평창 즐기러 온 '폴라베어'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현장에 코카콜라의 마스코트 폴라베어가 나타났다. 29일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휘닉스파크 리조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코카콜라 헤피니스 자판기 홍보관을 방문해 폴라베어와 포즈를 취하며 이벤트를 즐기고 있다. /한국코카콜라 제공

에어컨이야, 립스틱이야?

캐리어 신형 '슈퍼X-파워' 상단부 최대 270도 회전 20m 떨어진 곳까지 시원

립스틱을 닮은 모양새가 이색스럽다. 립스틱 뚜껑이 열리듯 상단부가 분리돼 회전하니 찬바람이 쌩쌩 날린다.

캐리어에어컨이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 최초로 에어컨 상단부가 최대 270도 돌아가는 2013년형 에어컨 '슈퍼X-파워'(립스틱형)를 선보였다. 회전 각도를 지정할 수 있는 '매직 스윙 헤드' 시스템을 적용, 냉방 사각지대를 없앤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여기에 바람 도달 거리를 국내 동급 제품으로는 최장인 20m 이상으로 늘린 '매직롱펀치' 기능을 탑재했다. 9단계 공기 청정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히트펌프' 기능으로 겨울에는 난방기로도 쓸 수 있게 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원격 작동 등이 가능하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갖췄다.

20~30대 젊은 부부와 싱글족 가구, 33평대 이하 아파트에 적당한 13평형 15평형대 제품으로 출시했다.

다음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약 판매를 실시하며 가격은 2+1 멀티형이 200만~300만원 수준이다.

/김효순기자 hs***@

캐리어에어컨 모델인 탤런트 이보영(왼쪽)과 캐리어에어컨 강성희 회장

매일유업이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TV광고 캠페인인 '신선함만 담는다' 매일우유 ESL' 편을 선보인다. 김연아 선수가 모델로 나서 육

장소녀 우주인 이대성으로 모습을 메꿔가며 무균화 공정인 ESL 시스템을 알린다.

CJ푸드빌의 투썸커피가 한류스타 슈퍼주니어 최시원과 함께 명동을리브영점을 열고 30일 기부 이벤트를 펼쳤다. 최시원은 이날 매장을 찾은 글로벌 팬들에게 직접 내린 핸드드립 커피를 선물했다.

더스페셜 피자 2판이 한박스에!

'와우박스' 이어 또한번 파격 아이디어 담아 맛도 '더블' 즐거움도 '더블'…가격은 알뜰

"피자 이래 피자가 한 판 더?

한국 피자헛이 새롭게 출시한 '더블박스(Double Box)'가 인기몰이 중이다.

◆ 텐밀리언셀러 의 형복 2탄

더블박스는 지난해 텐밀리언셀러(1000만 판 판매)를 달성한 더스페셜 피자 두 판을 한 박스에 담은 제품. 피자헛의 베스트 메뉴를 모아 담은 와우박스에 이은 두 번째 박스 시리즈다. 와우박스는 피자와 함께 다양한 메뉴를 즐기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하루 1만 판 이상, 3초에 1박스 꼴로 판매되는 기록을 세우며 피자헛의 대표 메뉴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최근 선보인 더블박스 또한 기존 피자 박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 제품으로 다시 한번 업계 트렌드를 이끌어간다는 포부다.

◆ 맛있고 알뜰하고 재미있게

한국 피자헛 마케팅팀 조용상 이사는 "피자헛의 새로운 '더블박스'는 맛있는 피자를 알뜰하게 즐기는 것은 물론, 피자 박스를 받고 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즐거움을 선사하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피자 두 판을 한 박스에 담는다는 재기 넘치는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더블박스는 새로운 경험을 안겨준다. 피자헛은 단순히 피자를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어 일상에서 차별화된 경험을 고객들에게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더블박스는 골든 포테이토, 크림치킨, 까망베르, 텐더비프 등 4가지 더스페셜 피자 중 고객이 취향대로 고른 2판으로 구성된다. 특히 더스페셜 피자 2판을 알뜰한 가격 2만5000원에 즐길 수 있다. /전효순기자

1000만 고객이 선택한 '더스페셜 피자'

피자헛 '더블박스'로 즐길 수 있는 더스페셜 피자는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쫄깃한 찰도우와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토핑, 1만5900원이란 합리적인 가격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춰 출시 2년 반 만에 1000만 판 판매를 돌파한 베스트셀러다.

특히 피자헛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찰도우를 사용해 빵 끝까지 맛있게 즐길 수 있게 신경 썼다. 손으로 직접 두드려 만든 찰도우는 씹을수록 쫄깃하고, 살아있는 생(生) 이스트를 천천히 숙성시켜 속은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찰도우와 어울리는 심플 토핑으로 담백함도 살렸다.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메인 토핑을 강조했다.

훈제 닭가슴살과 버섯이 크림소스와 어우러져 진하고 부드러운 맛의 '크림치킨', 까망베르 치즈를 통째로 올린 '까망베르'는 여성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메뉴다. 고소한 웨지감자와 부드러운 매시 포테이토를 메인 토핑으로 올려 풍성한 감자의 맛을 강조한 '골든 포테이토', 프리미엄 비프와 야채가 어우러져 풍부한 맛을 내는 '텐더비프'는 남녀노소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롯데호텔울산으로 힐링여행

내달 1~17일 '설렘패키지' 연인·부부 달콤한 휴식처

올해는 짧은 설 연휴(2월 9~11일) 탓에 장거리 여행은 꿈도 못 꾼다. 롯데호텔울산에서 도심 속에서 최상의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설렘 패키지'를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선보인다.

사랑하는 연인과 멋진 하루를 계획 중인 커플이라면 '설렘 연인편'(20만원)을 추천한다. 디럭스 객실 1박, 2인 조식, 과일 케이시, 전통 윷놀이 세트, 아모레퍼시픽의 인기 아이템 8종을 담은 '미스비 박스'로 구성됐다.

명절 증후군에 지친 아내를 위한 선물로는 '설렘 가족편'(45만원)이 제격이다. 스위트 객실 1박, 2인 조식, 과일 케이시, 전통 윷놀이 세트, 웰컴 드링크 4매,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4매, 롯데호텔 담요 2개, 울산의 마스코트 고래 인형 2개가 포함돼 있다.

◆ 밸런타인 패키지도 로맨틱

밸런타인 데이에 맞춰 다음달 8일부터 17일까지 '디어 마이 발렌타인' 패키지(43만원)도 마련한다.

스위트 객실 1박, 2인 조식 뷔페, 레스토랑 '벨로슬라'의 '러블리 양식 코스' 2인, 인스탁스 카메라 무료 대여와 필름 1통으로 구성했다. 여기에 메크에브라 셀렉션 브뤼 샴페인 1병과 초콜릿 세트, 과일 케이시가 추가로 제공된다. 울산 내 픽업(또는 샌딩)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패키지 가격에 세금과 봉사료는 별도로 붙는다. 문의:(052)960-4300 /박지원기자

건강식품 새역사 쓰는 롯데헬스원

2002년 출범 이후 끊임없는 히트 제품 개발로 매출 1000% 증가

롯데가 만든 건강식품 브랜드 '롯데 헬스원'이 차별화된 제품 출시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02년 출범한 롯데 헬스원은 롯데 중앙연구소의 연구 성과와 롯데제과의 마케팅 영업력, 롯데제약의 생산능력을 결합해 합리적인 건강식품을 만들겠다는 롯데의 의지가 담긴 브랜드. 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건강기능성식품의 철저한 시장조사와 효능 검증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롯데 중앙연구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부분은 업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 글루코사민 제품 최초 출시

출범 1년 만인 2003년 국내 처음으로 글루코사민 제품을 선보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 2006년 홍삼 브랜드 '6년 정성'을 출시, 홍삼 시장에 뛰어들어 현재까지도 제품 개발과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07년에는 대한약사협회가 인증한 껌 제품군을 선보여 기능성 껌 시장의 포문을 여는 역할에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2010년에는 중남미 국가에서 재배되는 천연 허브 마테를 주원료로 한 제품 상용화에 성공하여 다이어트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각시켰다. 출시 대비 1000% 매출이 증가하면서 롯데 헬스원은 현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고 있다.

롯데 헬스원 관계자는 "Rg3 증강 홍삼 환작 브랜드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라며 "세계 1위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NBTY사의 최상급 브랜드 NBTY의 글로벌 종합 비타민의 제품군 확대를 통해 비타민 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너뷰티 제품인 스킨파이브, 식물성 해조류로 만든 식물성 오메가3 출시 등 건강과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숙면 드링크 '양 백마리', 각성 드링크 '황올빼미'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드링크 시장 산업의 첫 장을 열었다. /김은희기자

짧은 설연휴 가까운 日 규슈로!

이번 설은 예년보다
짧은 휴일 탓에 해외여행을
욕심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1시간 내외로 떠날 수 있는
일본의 '규슈'라면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최근 엔화 약세로 보다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대자연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규슈 올레' 트레킹과
유럽 여행의 정취를 만끽하는
'하우스텐보스' 코스를 소개한다

/박지원기자

다카치호 코스

3000년된 숲에서 어린 아이가 되다

제주만큼 순수한 '규슈 올레'… 온천·음식 등 힐링세트

여행을 통해 여유와 휴식의 '힐링'을 찾는다면 '규슈 올레'가 제격이다. 자연 속에서 느긋하게 즐기는 힐링 트레킹은 어느새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규슈 올레'는 우리나라 '제주 올레'에 로열티를 제공하고 지난 2011년 3월에 개장한 트레킹 코스. 온천과 음식 문화가 곁들여져 있어 제주 올레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한 폭의 산수화, 오쿠분고 올레
오이타현에 있는 오쿠분고 올레는 기차역 JR아사지역에서 다케타시의 성하마을까지 총 11.8km의 코스다.

일본의 전통적인 산촌과 농촌마을, 자연경관 외에도 역사적인 고성과 절 등 볼거리가 많다. 한참 길을 걷다 보면 산 중턱에 있는 계단식 논이 보인다. 좁은 공간에서 지로 잔 듯 일정하게 놓여 있는 계단식 논에서 일본인의 섬세함과 단정함을 엿볼 수 있다

◆3천 년 녹나무 숲, 다케오 올레
사가현에 있는 다케오 올레는 JR다케오 온천역에서 다케오 온천 누문까지 총 14.5km의 코스로 가장 일본다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다케오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한 오래된 온천마을. 이 코스는 약 3000년 된 커다란 녹나무와 1300년 전통의 온천, 400년부터 시작된 도자기 가마 90여 개 등 곳곳에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특히 다케오 신사 안에 있는 녹나무는 다케오 사람들이 정신적인 힘을 얻는 '파워 스팟(Power Spot)'으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케오 올레 코스 '엔타비'에서는 일본 전통 료칸 숙박과 다케오 올레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한다. 인천 또는 김해에서 대한항공을 이용하거나 부산에서 출발하는 선박 상품도 있다. 1인 기준 29만 9000~33만9000원까지. 다케오 온천 입욕권을 무료로 증정한다. 문의: 여행박사 070-7844-1412

◆소박한 치유, 아마쿠사·마쓰시마 올레
구마모토현의 '아마쿠사·마쓰시마 올레'는 아마쿠사제도의 마쓰시마를 일주하는 12.3km의 코스다.

아마쿠사·마쓰시마 올레는 소박하고 꾸밈없는 일본 시골마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아마쿠사는 일본의 3대 석양 중 하나라고 불릴 정도로 노을이 아름다운 곳이다. 특히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즐기는 온천욕은 멋진 추억으로 남는다

◆제주도와 닮은, 이부스키 올레
가고시마현에 있는 이부스키 올레는 JR니시오야마역에서 JR가이몬역까지 총 20.4km의 바다 올레 코스로 우리 '제주 올레'와 가장 많이 닮았다.

오르내리는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 길이라 어린이와 노약자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 초반 코스는 높이 924m로 완벽한 삼각형 모양의 산인 가이몬다케를 바라보며 걷는데 가이몬다케는 제주도의 오름을 연상시킨다

ⓒ 가이몬다케의 이부스키 올레 트레킹 3박4일: 호도투어에서는 가이몬다케 등산과 이부스키 온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한다. 1월부터 5월까지 매주 월요일 대한항공으로 출발하며 1인 기준 87만9000원(유류세 5만8000원 별도). 문의: 호도투어 02-774-7726

ⓒ 가고시마 규슈 올레 코스 3일 또는 4일: 하나투어에서는 이부스키 올레 트레킹 후 모래 찜질과 오천지 열차에서 즐기는 도시락을 맛볼 수 있는 상품을 내놓았다. 매주 금·일요일 대한항공으로 출발하며 1인 기준 74만9000원. 문의: 하나투어 1577-1233

■ 새로 개장한 규슈 올레

◆나가사키현 히라도 코스
크고 작은 섬들을 멀리까지 전망할 수 있는 가와치 고개, 풍취가 있는 성사(城寺)를 걷는 등 볼거리가 많아 4~5시간 정도가 걸린다. 총 13km로 난이도는 하(下)

◆구마모토현 아마쿠사·마쓰시마 코스
거대한 전원 풍경 한을 가로질러 센간잔(산)을 목표로 하는 11.1km의 난이도 중(中)의 코스. 아마쿠사의 파란 바다에 떠 있는 섬들을 보면서 어촌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미야자키현 다카치호 코스
약 2000년 전에 창건됐다고 전해진 다카치호 신사와 거대한 주상절리로 이름이 높은 다카치호협을 산책하다 보면 내 속의 나를 발견하게 된다. 12.3km의 난이도 중하(中下)이다

◆기고시마현 기리시마·묘켄 코스
일본 근대화 초석을 다진 사카모토 료마가 아내 오료와 일본 최초의 신혼여행지로 방문한 장소로 유명한 길. 11km 내내 깊은 숲이 이어지는 코스는 일상의 근심을 한 번에 해방시켜준다

동양 속 유럽 '하우스텐보스' 겨울 빛의 왕국 변신

◆그곳에선 누구나 동화 주인공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동화 속 공주님, 왕자님을 꿈꾼다.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의 '하우스텐보스'는 매년 겨울이면 전구 1000만 개가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빛의 왕국'으로 변신한다.

유럽에 가고 싶지만 경제적·시간적인 이유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우스텐보스는 최고의 여행지다

◆세계 최고의 꽃 잔치 즐겨
하우스텐보스 최대의 가든 지역인 '아트가든'에는 튤립, 양귀비, 달리아 등 꽃이 가득하고 희귀한 꽃들도 많이 볼 수 있다

낮에는 신나는 퍼레이드가 올려지고, 밤에는 불꽃놀이가 하늘에

수준 [illegible]. 특히 3월 10일까지 계속되는 '빛의 왕국' 축제는 1000만 개의 전구가 황홀한 야경을 선물한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특별한 쇼핑도 오랜 추억으로 간직된다. 40여 개 상점에는 네덜란드 직수입품과 민예품 등 하우스텐보스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오리지널 상품과 시즌 상품이 가득하다

ⓒ 하우스텐보스 미니팩 2박3일: 여행박사는 하우스텐보스 일루미네이션 '빛의 왕국'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한다. 3월까지 매일 티웨이항공으로 출발하며 1인 기준 43만9000원부터. 하우스텐보스 왕복 셔틀 1일 패스가 포함돼 있다. 문의: 여행박사 070-7017-2148

ⓒ 규슈 하우스텐보스 4일: 하나투어는 하우스텐보스 1일 프리패스 할인, 건강 체험 리조트 아소팜빌리지 숙박, 유후인 온천마을 자유 관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한다. 매주 티웨이항공으로 출발하며 1인 기준 74만9000원부터. 문의: 하나투어 1577-1233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美 그래미 전야제 파티 참석

3인조 그룹 **에픽하이**가 미국 대형 레이블인 캐시 머니 레코드가 주최하는 그래미 시상식 전야제 파티에 참석한다.

전야제 파티는 다음달 10일(한국 시간) 미국 LA에서 열리는 제55회 그래미 시상식 하루 전날 열리며, 릴 웨인·니키 미나즈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캐시 머니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에픽하이는 상반기 미국 데뷔를 위해 음반을 준비 중이다.

알리 신곡 '지우개' 뮤비 출연

한류스타인 **최지우**가 알리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그는 30일 공개된 알리의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지우개' 뮤직비디오에서 연인과 헤어져 아파하는 여주인공을 연기했다. 최지우는 과거 소속사였던 에당과의 인연으로 노 개런티로 출연했다. '지우개'는 알리 특유의 폭발적인 창법 대신 담백한 음색이 담긴 발라드다.

서울영상광고제 모델상

배우 **김수현**이 서울영상광고제에서 올해의 모델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서울영상광고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영상 광고 시상식으로, 올해의 모델상은 지난해 활약한 최고의 광고 모델에게 주는 상이다. 김수현은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인기에 힘입어 의류·전자·외식·보석 등 여러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했다.

'구가의 서'로 사극 첫 도전

이승기와 **수지**가 4월 방영될 MBC 새 월화극 '구가의 서'로 사극 연기에 처음 도전한다.

반인반수로 태어난 최강치가 사람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무협 활극인 이 드라마에서 이승기는 지리산의 수호신수 구월령과 인간 서화 사이에서 태어난 최강치 역을, 수지는 뛰어난 무예와 궁술을 가진 담여울 역을 맡았다.

가요 작곡가로 주목받는 이루마

"열광의 음악 두드리고 싶었죠"

객석의 환호소리 그리워 백지영 '실다' 작곡 인기

클래식·대중음악 잇는 다리 역할을 할 겁니다

감성적인 피아노곡으로 클래식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가요 작곡가로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가 작곡한 백지영의 발라드곡 '싫다'가 최근 가요 차트 상위권을 휩쓸면서 새삼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 작곡가로서의 나

'싫다'는 이루마가 그동안 '키스 더 레인' '메이비' '리버 플로스 인 유' 등 세미 클래식 연주곡을 통해 전해준 느낌과 다르다. 이루마 특유의 감성은 여전하지만 장르도, 템포도 다른 대중성 강한 가요다.

"지난해 11월 곡 제의를 받았어요. 곡을 쓸 시간이 많진 않았지만 백지영씨의 음색을 많이 연구했죠. 템포를 늘어 새로운 발라드 느낌을 주면서도 '사랑 안 해' 처럼 백지영씨가 이전에 부른 곡들과 비슷한 색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가요 작곡이 새로운 시도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처음은 아니다. 클래식을 하기 전부터 가요에 관심이 많았고, 알려지지 않았을 뿐 테이·김연우·팀·바비킴·MC스나이퍼 등 가수들과 계속 음악 작업을 해왔다.

그러다 얼마 전 2FACE와 함께 작곡 프로젝트 팀 마인드 테일러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가요 작곡에 뛰어들었다. '싫다'는 마인드 테일러의 작품으로, 앞으로 발라드뿐 아니라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영국에 있다가 2000년 초에 귀국했을 때 연극 음악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가요에도 관심이 많아서 댄스곡 등 몇 곡을 만들었는데 당시엔 잘 되진 않아서 일을 접고 나름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죠. 꿈꿨던 일을 이렇게 하게 돼 행복해요."

얼마 전 백지영의 컴백 무대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기도 했던 그는 "그동안 해왔던 연주 음악은 진진한 곡이라 객석의 환호 소리를 들을 순 없었다. 열광시킬 수 있는 음악를 해보고 싶었다"면서 웃었다.

현재 백지영뿐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곡 작업까지 하느라 바쁘다. 그중엔 걸그룹도 있다. "가요 작곡가로서는 신인이나 마찬가지죠. '싫다'를 계기로 가요계에서 작곡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 클래식계 색다른 존재

사실 이루마는 이전부터 클래식계에서 색다른 존재로 통했다. 정통 클래식 작곡을 전공했지만 대중적인 클래식 음악을 해서다. 가요 작곡은 그 연장선인 셈이다.

"정체성을 고민해본 적은 없어요. 클래식이든 가요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싶죠. 특정 장르가 아닌 이루마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훗날 기억할 수 있는 음악이라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가요에 한참 애정을 쏟고 있지만 현재의 이루마를 있게 한 연주 음악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국투어를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5개 도시에서 2만50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게다가 DJ로 나선 MBC FM4U '이루마의 골든디스크'도 매일 꾸준히 진행 중이다. 권상우의 아내인 손태영의 언니와 결혼해 딸 한 명을 둔 그는 "많이 바쁘지만 틈틈이 아이와 놀아줄 시간은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앞만 보고 달리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더운이 좋았는지 가요 작곡뿐 아니라 해외 공연 계획도 봇물을 이룬다. 다음달 2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릴 서울 공연을 마치면 3월엔 독일 앨범 발매 쇼케이스가 있고 4~5월에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공연이 예정돼 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가요 작곡가로 활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주 음악을 하고 있어요. 가요에선 마인드 테일러의 색을, 연주 음악에선 이루마 색을 계속 보여줄 겁니다."

/박진하기자 tak3427@metroseoul.co.kr/

사진/서보형(라운드테이블) 디자인/양성혜

CJ E&M
Mnet
수 있다면
도전하라!
장르불문/신개념/댄스서바이벌
댄싱9
총상금 5억(초호화 공연제작 3억+상금 2
지원방법 www.dancing9.com또는 dancing9.interest.me에
2분(200MB)이내의 댄스 동영상 업로드
지원마감 5월3일(금)까지
댄싱9
검색

'강호동 효과' 어디갔어?

복귀작 성적표 신통찮아

'강호동 효과'가 사라졌다. 높은 기대를 받으며 1년여 만에 방송에 돌아온 강호동의 복귀작들이 신통치 않은 성적을 기록 중이다.

그가 새롭게 선보인 KBS2 예능 프로그램 '달빛프린스'가 1·2회 연속 동시간대 최하위 시청률에 머물렀다. 더욱이 29일 방송된 2회 시청률은 4.7%(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첫 회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앞서 복귀한 친정 격의 프로그램 MBC '무릎팍도사'와 SBS '스타킹'도 시청률이 초반에만 높았을 뿐 현재는 이렇다 할 성적을 보여주지 못해 강호동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 관계자들은 강호동의 오랜 활동 공백과 변화한 예능 트렌드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달빛프린스' 측은 평가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제작진은 "버라이어티 북토크가 낯선 포맷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청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시간을 갖고 매회 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llegible]

<이준·오연서>

준·서 커플 '우결'서 못본다

리얼리티 문제… 프로그램 하차

가상부부 이준과 오연서가 결국 MBC '우리 결혼했어요(우결) 시즌4'에서 하차한다.

이준의 소속사인 제이튠캠프는 29일 "이준의 과도한 스케줄 등을 고려해 제작진 측에 하차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작진 역시 "이준과 오연서가 스케줄 문제로 하차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천진난만한 매력을 자랑하는 예능돌과 국민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으로 주가를 올린 여배우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며 '우결4'에 투입됐다. 곧바로 준·서 커플로 사랑을 받았고, 프로그램 외적으로도 각별함을 과시해왔다.

그러나 올해 1월 오연서와 이장우의 스캔들이 보도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오연서 측이 열애를 번복하며 열애설을 해명하는 동안 이장우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스캔들은 급기야 준·서 커플 진정성 논란으로 번졌다.

제작진은 이준과 오연서가 방송에서 열애설을 직접 언급하는 초강수를 두며 가상부부 생활을 이어갔지만, 이준은 22일 팬카페에 "내가 로봇인가? 저 연기 못 하겠다"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들의 하차로 결국 5개월의 가상부부 생활은 프로그램이 만들어놓은 설정에 스타의 실제 생활까지 끼워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됐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최장수 아이돌 신화 데뷔 15주년 콘서트

3월 16·17일 올림픽공원

국내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가 팬들과의 끈을 놓지 않는다.

지난해 3월 4년 만에 콘서트와 앨범으로 컴백했던 신화는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이들은 3월 16~17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데뷔 15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한다.

소속사 신화컴퍼니는 30일 공식 홈페이지와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에 공연 티저 영상과 티켓 오픈 일정을 공개했다. 또 4월 말 정규 11집을 발표하고 그룹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소속사는 "15년 동안 멤버 변화 없이 꾸준히 인기를 누리며 활동해 온 아이돌 그룹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이번 공연은 지난해 열린 14주년 기념 콘서트에 버금가는 감동을 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998년 3월에 데뷔한 신화와 15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팬들에게 3월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는 지난해 컴백 당시 상반기 그룹 활동과 하반기 개인 활동의 체계를 닦겠다고 밝혔고,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

BELUGA?
<국내최초 캐릭터 토크쇼!>
롯데월드 벨루가 TALK SHOW 오픈!
벨루가야, 안녕?
나랑 이야기 해볼래?
롯데월드 가고!
졸업/입학선물도 받고!
도심 속에서 즐기는 설날 연휴!
<설날 큰 잔치>
LOTTE WORLD

방송활동도 안한 긱스 대학가 행사계 블루칩

힙합듀오 긱스가 얼굴이 채 알려지기도 전에 대학가 행사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새 학기를 맞아 서울·대전·부산 등지에 있는 각 대학에서 진행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줄 잇는 섭외 요청을 받고 있다. 소속사 WA엔터테인먼트는 "정식으로 방송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발표한 음악이 현재까지 음원 차트 상위권에 머물고 있고, 특유의 풋풋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젊은층에 어필한 것 같다"고 전했다.

긱스는 2011년 데뷔 앨범 '오피셜리 미싱 유'를 발표하고 실력파 힙합듀오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씨스타 멤버 소유가 피처링한 '오피셜리 미싱 유 투'로 음원 차트에 돌풍을 일으켰다. 방송 출연 등 어떤 홍보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얻은 결과라 더욱 주목받았다.

긱스는 최근 인기 작곡가 김도훈이 설립한 WA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어 메이저 음악시장 활동에 날개를 달았다.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앨범 준비에 한창이며, 소유에 이어 여러 걸그룹 멤버들의 협작 요청도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순호기자

"이번엔 댄스 서바이벌"

'슈퍼스타 K' 연출 김용범 CP '댄싱 9' 선봬

엠넷 '슈퍼스타 K' 1~3을 연출한 김용범 CP가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댄싱 9'을 새롭게 선보인다.

엠넷 신형관 음악사업국장은 30일 "오디션 프로그램이 포화 상태라는 지적은 이미 '슈스케2'부터 꾸준히 있어왔지만 쇼와 드라마에 모두 능한 김 CP의 연출력은 분명 다른 작품을 만들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는 "위쇼스키 남매가 영화 '매트릭스 1~3'을 만든 뒤 '스피드 레이서'를 들고 나온 격이다. 앞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버스커버스커'나 '아이어'처럼 보다 폭넓은 음악을 소개했듯 '댄싱 9'이 소외됐던 춤의 어휘디움과 예술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댄싱 9'을 기획한 배경에 대해 김 CP는 "유튜브를 통해 세계적인 스타가 배출되는 등 대중들이 문화의 주체가 되는 현상은 이미 막을 수 없는 대세"라면서 "그중에서도 일반인 참가자들이 스타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가장 강렬하고 효과적인 포맷"이라고 설명했다.

차별화 전략은 '서바이벌'에 있다. 지역 예선과 합숙을 거친 참가자들 중 A, B팀의 마스터가 각 아홉 명을 드래프트 지명해 생방송에 진출한 후 코리안 리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연이 진행된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일요일 예능 강자들 애니 더빙 '한판승부'

일요일 저녁의 '예능 강자'들이 스크린에서 목소리로 '장외 대결'을 펼친다.

SBS '일요일이 좋다 - 런닝맨'의 이광수·송지효와 KBS2 '개그콘서트'와 용감한녀석들(정태호·박성광·신보라·양선일) 팀이 더빙으로 각각 참여한 애니메이션 '해양경찰 마르코'와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2'가 다음달 14일과 21일 차례로 개봉된다.

이광수와 송지효는 소심하지만 정의로운 해양경찰 펭귄이 마르코와 말괄량이 여자친구 루루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첫 더빙 도전이지만 '런닝맨'에서의 찰떡 호흡을 살려 듣는 재미를 더했다.

전편에 이어 속편에도 합류한 '녀석들' 팀은 개발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재무장했다. 여왕 코범 자질 역의 신보라와 심술쟁이 환승이 로도 역의 박성광 등 팀원 모두가 자신들의 개그 캐릭터를 살린 목소리 연기로 폭소탄을 선사한다.

'빌리'의 국내 수입사인 코리아스크린 측은 "같은 개그맨들이 1~2편에서 연이어 목소리를 연기하기는 '녀석들' 팀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듣는 재미가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성준기자

진구(왼쪽)와 박하선이 KBS2 '광고천재 이태백' 제작발표회에 앞서 다정한 포즈를 연출했다. /연합뉴스

진구 "여배우와 호흡 처음"

'광고천재 이태백' 주연

진구가 KBS2 월화극 '광고천재 이태백'을 통해 첫 드라마 주연을 맡는 남다른 속마음을 밝혔다.

진구는 30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십 년 동안 연기를 하면서 남자들과 숙소 생활만 하다가 젊고 예쁜 여자 배우와 처음 호흡을 맞추게 됐다. 이런 복도 오는구나 싶다"면서 박하선·한채영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자랑했다.

낮은 스펙으로 광고계에 입성한 이태백 역을 맡은 그는 "대학시절 광고학을 전공했지만 1학년 때는 공부에 취미가 없었고 데뷔 후로는 연예인 놀이 하느라 학교에 거의 나가지 않았다"면서 "태백이 갖춰진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공부하지 않은 게 도움이 된다"고 말해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비밀을 감춘 금산애드의 인턴 카피라이터 백지윤 역의 박하선은 유덕환과의 열애설에 대해 "개인적인 질문은 삼가달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달 4일 첫 방송된다.

/한보흠기자

(주)이랜파이낸셜대부(주)
[2011-서울강남-0163]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33 데이콘빌딩 T.1566-7979 대출금리 연 38.81%이내(연체금리 연 38.81%이내) 단, 2011.6.27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한함.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없음.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역시! Made in Korea Rush & Cash
1566-친구친구

베일 벗은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연습장면 공개

화려한 군무에 와! 뷔페같은 음악 깍!

뮤지컬 흥행 보증수표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팀 라이스가 뭉친 기대작 '요셉 어메이징'이 베일을 벗었다.

29일 샤롯데씨어터에서 연습 장면을 공개한 이 작품은 성서 속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 노예로 팔려가면서 시련을 겪는 그의 꿈과 여정을 다룬다.

요셉 역에 제국의 아이들 임시완, 해설자 역에 리사가 나선 이날 연습은 성서 이야기를 소재로 했으면서도 현대적인 구성으로 꾸며져 눈길을 끌었다.

대사 없이 노래로만 만들어진 '송스루' 형식으로 발라드, 로큰롤, 샹송, 랩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넘나들었고, 현대적인 위트와 유머도 곁들였다.

주인공은 요셉이지만 앙상블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요셉의 형제 11명과 그 부인들까지 총 20명 이상의 남녀 배우들이 쉬지 않고 무대에서 화려한 군무를 펼쳤다.

이 작품은 '오페라의 유령', '캣츠' 등을 제작한 웨버와 '라이언 킹', '미녀와 야수', '에이다' 등을 작사한 라이스가 최초로 공동 작업한 데다 국내에 정식 라이선스로는 처음 공연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4년 유열과 신효범 주연으로 공연된 적이 있으나 정식 라이선스는 아니었다.

다음달 12일 샤롯데씨어터에서 개막할 이번 공연은 대형 LED를 설치하고 300여 벌의 의상을 마련하는 등 볼거리를 강화한다. 요셉 역은 임시완과 송창의·조성모·정동하(부활)가 번갈아 연기한다. 문의 070)4488-8522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위안부 할머니 사진전 다음달 15일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과 고통을 담은 사진전 '이야기해주세요'가 다음달 15일까지 아산정책연구원 1층 갤러리에서 열려 시민을 찾아간다.

이번 전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증명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구본창·허란주·안해룡·권우성·최형락·한재호·가와다 후미코 등 한·일 사진작가들의 사진, 음악·영상 외에 조선일보·한겨레·경향신문이 기획한 시[illegible] 수십 점을 [illegible] 수 [illegible] 할머니들의 [illegible] 20년이 넘도록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진상 규명을 외쳐온 수요시위의 기록,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 관한 기록이 포함돼 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U-city Nightclub
LUXURY 30.40 U-CITY NIGHTCLUB

wnd8686@naver.com

무조건 당일 최고지급
개통 94만원
011-322-5555
metro 안내 광고문의 02-739-5807
기네스인증세계최대신문
연체 대납
당일 결제 02)323-5878
직장인 당일 신용대출
★당사에서 바로지급★
02)771-4088
카드 연체 결제 대납
02)337-8832
출장 상담 환영
남남북녀 결혼전문
초혼 재혼 연령제한없음
02)3663-2228
이혼/파산 상담
이혼,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상속
개인회생, 파산, 면책
★즉시상담가능★
가정법률사무소
1666-2528

한국은 가자미 나라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우리나라의 옛 별명이 '가자미 나라'다. 한자로 접역인데 가자미가 많이 나오는 땅이라는 뜻이다. 사실 우리 식탁에는 알게 모르게 가자미가 많이 오르는데 구이와 조림, 찜은 물론이고 식해도 있고 미역국에도 가자미를 넣는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생선회가 광어회인데 예전에는 가자미, 광어, 도다리를 딱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가자미라고 했으니 가자미의 나라가 굳이 틀린 표현은 아니다.

가자미 눈은 한쪽으로 쏠려 흘겨보는 눈이니 가자미 나라라고 하면 무엇인가 마땅치 못한 이미지가 같지만 사실은 반대다. 조상들은 우리 땅을 스스로 가자미의 나라라고 했고 정조 임금 역시 "우리나라는 접역으로 예의를 아는 곳"이라고 했다.

가자미를 자랑스럽게 여긴 이유는 비목어(比目魚)이기 때문이다. 가자미나 광어는 눈이 한쪽으로 쏠려있어 혼자서는 앞을 볼 수 없으니 반드시 두 마리가 짝을 이뤄야 헤엄칠 수 있다고 믿었다. 때문에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친구나 연인, 부부의 두터운 정을 상징하는 물고기가 됐다.

전설에는 동서남북에 이런 동물이 각각 하나씩 있다. 동쪽에는 비목어가 있고 남쪽에는 비익조(比翼鳥)가 있는데 암수의 눈과 날개가 각각 하나씩이어서 짝을 짓지 못하면 날지 못한다. 서쪽의 비견수(比肩獸)는 다리가 한쪽이 짧기 때문에 암수가 서로 의지해야 걸을 수 있는데 맛있는 풀이 있으면 반드시 짝에게 먼저 먹이고 어느 곳이든 함께 다닌다고 했다. 북쪽의 비견인(比肩人)은 눈과 입이 하나씩 있어 번갈아 가며 먹고 앞을 보는 동물이다. 결혼식 혹은 재혼식 때 가자미를 먹으며 사랑과 협력을 다짐해보는 것도 좋겠다.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8				7		6
2		6		3		9		8
			6		5			
		4	5		9	3		
		5	4		8	1		
			9		2			
1		2		5		4		7
8		3				5		1

5	3						8	1
		9	4			2		
8			5		9			
2				7		8	3	
				5				
	7	8		6				5
			8		6			4
		7			5	1		
4	1						2	8

스도쿠 정답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 8877
www.saju4000.com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고심 자기분야의 실력 쌓아야 든든

취업지원금 여자 81년 11월 17일

Q 무엇을 하든지 힘들긴 해도 참 좋은 직장,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겉모습도 날이 갈수록 더 멋져지고 좋아진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제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딜 가든 힘든 것 같습니다. 눈치도 더 많이 보게 되고, 남을 의식을 너무 많이 하게 되어 싫어 듭니다.

A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미래는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삶이 조급해지지 않으며 당서를 일을 자신감 있게 대할 수 있어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불안해지지 않으려면 자기 분야의 실력이 우선입니다. 어떤 화려함도 실력 없이서는 빛을 잃기 마련입니다. 얼굴의 화장을 지워보십시오. 상관(傷官: 관을 상하게 함) 홍염(紅艶)의 도화살로 인기가 생은 많이 속하나 화장을 지우면 남을 의식을 많이 하게 됨도 줄어듭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지만 생계로는 본연이 만족을 못하는 것은 초조함에서 오는 현상이다. 초심의 검박한 생활로 돌아가서 첫 월급 탔던 해를 기억해보십시오.

오랜 교제끝에 결혼 행복할까요 평탄한 부부관계 계속되니 해피

에니금 여자 83년 11월 21일 양력/남자 83년 8월 19일 양력

Q 여친이다 좀 쳐겨보고 있습니다. 용기 내서 물어봐요. 오랜 교제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좋아해주십니다. 이 사람과 결혼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결혼해서도 일을 하고 싶은데 현재 직장이 괜찮은지 미래운과 저의 취향운도 부탁드립니다.

A 결혼생활이 원만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여자를 잘 생(生)하는 오행을 가져야 하며 여자는 남자를 육합(六合)이다. 삼합(三合)해야 평탄한 부부관계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충살(沖殺) 등을 하고 따라 맞는 오행이나 원진살(怨嗔殺) 등 지내자면 해어지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며 사는 것이 많으므로 안심입니다. 직장이란 회사가 아무리 좋은들 개개인의 생각과 스타일은 다를 것입니다. 직장은에게 처음부터 일든 연봉의 액수를 주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해가 지나고 실력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서 경력도 쌓이지면서 연봉도 많아지는 게 순서입니다. 공연한 이직은 나중에 자리 보존도 어렵게 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월 31일 (음 12월 20일) 김희수 인생상담 02-577-0561

쥐 48년생 움직이면 쥐라도 생긴다. 60년생 자신 있어도 새 일은 욕심내지 마라. 72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격이다. 84년생 따분한 일상에 활력감이 솟을 부는구나.

소 49년생 남의 힘로 분주한 하루~ 61년생 이기 싫으면 뒷걸음으로 선다. 73년생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은 묶지 마라. 85년생 노력한 만큼 충족한 성과 얻는다.

호랑이 50년생 혼자 슬림 취미가 생긴다. 62년생 세상이 그대를 속여도 슬퍼하지 마라. 74년생 남모를 고민에 머리가 복잡해진다. 86년생 생로의 이상이 지켜보나 물어봐라.

토끼 51년생 큰 것을 얻으려면 작은 것은 양보~ 63년생 겸손하면 일확 이익 얻는다. 75년생 생각이 많으면 장벽만 생는 꼴. 87년생 오전엔 고전하나 오후부터 풀린다.

용 52년생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64년생 헷갈리는 일은 생소 생각대로 하라. 76년생 기척 깊은 성과에 모두 놀란다. 88년생 부모의 허락받는 일로 고민의 나날~

뱀 53년생 세속에 찌든 사업이 속임수도 크톤~ 65년생 직장 은은 일의 축이 된다. 77년생 예상 못한 지출이 있으니 대비하라. 89년생 도전정신 발휘하면 얻는 게 많다.

말 42년생 배우자와 충돌은 피하는 게 좋다. 54년생 고민이 해결되어 몸도 마음도 가뿐~ 66년생 상플리 쓴소리 좋다 간 역등 맞는다. 78년생 오늘보단 내일을 생각할 것.

양 43년생 돈 쓸 계는 생러 찔러볼 것. 55년생 배우자 눈을 닫으어 작은 갈이진다. 67년생 최선을 다했으면 운도 기대해 보자. 79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격이다.

원숭이 44년생 벗들과 즐겁게 회포 푼다. 56년생 약속은 어쩔이 어려우니 대비하라. 68년생 어미는 대지에 새싹이 돋는 격이다. 80년생 큰 것을 얻으려면 작은 것은 양보하라.

닭 45년생 모난 이웃 때문에 어수선하구나. 57년생 집안에 웃음꽃이 활짝 핀다. 69년생 현실성 없는 기획은 보류할 것. 81년생 힘이 흘러가니 능률도 쑥 오른다.

개 46년생 한 번 등 돌린 사람은 또 등 돌린다. 58년생 버릴 건 과감히 버려라. 70년생 월에 하신이 서 꿈이 숫는다. 82년생 상사의 허물은 모른 척 슬그머니 덮어줘라.

돼지 47년생 가족이 재산이니 잘하라. 59년생 조용한 삶에 신선한 바람이 분다. 71년생 지나간 일은 울부짖어도 소용없는 일~ 83년생 기력가 앞을 위 여감 키워야 한다.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5 What time do you get up every day? 일상

영어 통문장 익히기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당신은 매일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보통 일찍 깨요.
저는 아침으로 주스, 시리얼, 토스트, 커피를 먹어요.
저는 매일 아침 9시에 사무실에 도착해요.
저는 보통 밤 12시쯤에 잠자리에 들어요.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What time do you get up every day?
I usually wake up early
I have juice, cereal, toast, and coffee for breakfast
I get to work at nine o clock every morning
I usually go to bed at about midnight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What do you usually have for breakfast?
B I have juice, cereal, toast, and coffee 아침으로.

정답 for breakfast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 usually [get up / eat dinner] early. Do you?

2. I usually go to bed at about [midnight / 10]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이 서포트합니다.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형용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innovative	형 혁신적인, innovation 명 혁신	an innovative design 혁신적인 디자인
outgoing	형 외향적인	an outgoing person 외향적인 사람
prospective	형 장래의, 지망하는 prospect 명 전망, 가능성	a prospective employee 구직 희망자
substantial	형 상당한	make substantial profits 상당한 수익을 거두다
temporary	형 임시의, 일시적인	a temporary worker 임시직 직원
unexpected	형 예상치 못한, 뜻밖의	lead to unexpected results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다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What time 의문문 유형 "~은 몇 시에 하나요?"

시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자료에서 질문에 해당되는 시간을 찾아서 답변한다.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전치사 at을 활용하여 특정 시간을 말해주는 방법과 전치사 from / at을 활용하여 ~부터 ~까지의 같이 해당 시간대를 말해주는 방법이 있다.

Q. **What time** are we having **lunch**? ~리는 몇 시에 점심을 먹나요?
답변 포인트 질문의 내용

A1. We will have lunch **at noon**. 우리는 정오에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핵심 답변

A2. We will have lunch **from noon to 1 p.m.** 우리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핵심 답변

시간 정보 읽기 10:00 a.m. → ten a.m. 12:00 a.m. → twelve a.m. / midnight
12:00 p.m. → twelve p.m. / noon 06:30 p.m. → six thirty p.m.

at 지정된 특정 시간 9:00 a.m. [Opening Speech] → The opening speech will start at 9 a.m.
from 시간 to 시간 9:00 a.m. ~ 10 a.m. [Opening Speech]
→ There will be an opening speech from 9 to 10 a.m.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ybmbooks.com 02)2000-0515 YBM

토익 출제기관 ETS가 만든
ETS TOEIC 공식 수험서!
실제 유형, 실제 난이도, 최고의 적중률!
외국어 베스트셀러 1위

▶입문서 ETS TOEIC Starter ▶종합서 ETS TOEIC Prep Book ▶ETS TOEIC VOCA ▶무료 어플

고퍼 동영상 강의 제공 ▶ www.ybmbooks.com 무료 콘텐츠 제공 ▶ www.etstoeicbook.co.kr ETS TOEIC Book 무료 어플

장쯔이 "설원 위의 질주 신나요" 영화배우 장쯔이가 30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통합스포츠체험행사' 겸 '한국의 밤' 행사에서 스페셜올림픽 선수들과 스노슈잉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0.1초 싸움! 방심할 수 없다

'빙속여제' 이상화 귀국 "소치까지 최선 다할 것"

"지금의 상승세를 소치 올림픽까지 이어가겠다."

스피드스케이팅의 역사를 새로 쓴 '빙속 여제' 이상화(24)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30일 귀국 기자회견을 연 그는 "주 종목인 5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 자부심을 느낀다"며 "여름에 열심히 훈련한 대가가 기록으로 나타난 것 같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 소치 동계올림픽까지 지금의 페이스를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그는 올 시즌에는 월드컵 시리즈가 개막하자마자 4번의 대회에서 8차례 500m를 모두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30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상화가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20~21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월드컵 6차 대회에서는 첫날 500m 1차 레이스에서 36초99의 한국 신기록에 이어 2차 레이스에서는 36초80의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단거리 스케이터가 됐다.

뒤이어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펼쳐진 세계 스프린트 선수권대회에서는 1000m 1~2차 레이스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 신기록을 거푸 경신했다.

이상화는 "500m 종목은 0.1~0.2초 차이로 순위가 갈린다"며 "중국의 위징, 왕베이싱이나 네덜란드의 티스에 오네미 등 좋은 선수들이 많다. 방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박지성 '시간 때우기' 교체 수모

맨시티전 종료 직전 투입

위기의 박지성(32·퀸스파크 레인저스·사진)이 후반 종료 직전 교체 투입되는 수모를 당했다.

박지성은 30일 열린 2012~201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의 홈경기에서 0-0으로 맞서던 후반 43분 교체 투입돼 4분가량 그라운드를 뛰었다.

QPR은 강호 맨시티를 상대로 고전했지만 올 시즌 새로 영입한 골키퍼 줄리우 세자르의 눈부신 선방이 이어지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세자르는 후반 38분 제코의 땅볼 크로스에 이은 다비드 실바의 골문 앞 왼발 슈팅마저 막아냈다.

다급해진 해리 레드냅 QPR 감독은 벤치에 있던 박지성을 내세웠다. 이어 자모라와 파올란을 차례로 투입해 시간을 지연시키며 0-0으로 경기를 마쳤다. '시간 때우기' 교체라는 느낌이 다분했다.

박지성은 지난 27일 3부리그팀 MK돈스와의 FA컵 32강전에 선발로 나서 2-4로 패한 뒤 레드냅 감독이 되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위기에 몰린 상태다.

일단 이날 교체 명단에 포함돼 경기에 나서기는 했지만 당분간 퇴출되지 않더라도 주전이 아닌 백업 멤버로 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민준기자

"야구장 진해에? 말도 안돼"

NC, 창원시 결정 강력 반발

프로야구 9구단 NC 다이노스가 새 야구장을 진해에 짓겠다는 경남 창원시의 결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기를 들었다.

NC는 30일 창원시의 진해 야구장 부지 선정 발표를 접한 뒤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마산·창원·진해가 합쳐져 새로 탄생한 통합 창원시는 시청사, 도청사 유치를 놓고 마산과 창원이 치열하게 붙자 야구장 건립 부지로 유력하게 떠올랐던 마산종합운동장과 창원보조경기장이 아닌 진해 옛 육군대학 부지를 NC의 새 홈구장으로 택했다.

진해는 마산, 창원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낮고 교통이 불편해 관중 동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민준기자

제레미 레너 젬마 아터튼
당한만큼 돌려준다!
착한 동화는 잊어라
헨젤과 그레텔 마녀 사냥꾼 3D
2013년 2월 대개봉
metro 와 함께하는 헨젤과 그레텔 예매권 이벤트!
메트로 홈페이지에서 진행중인 이벤트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예매권을 증정합니다.
기간 1월 28일~2월 12일 발표 2월 13일 인원 150명(1인2석 300매)

HAAN
한경희뷰티

주름다리미
오앤 링클 프리

1월 31일(목)
오후 3시 40분
CJ오쇼핑 방송

이사이,
얼굴펴고
살자!

O& WRINKLE FREE

3대 주름을 관리하는 울트라 리프팅 케어

The-K 예다함상조

예다함

10만 가입 달성 기념

3가지 행복 이벤트

예다함 가입은 지금이 기회!

예다함이 10만 고객님께 받은 사랑에 더 크게 보답하고자
이벤트 기간 동안 가입하신 고객님께 추첨을 통해
기아자동차 K3 등 3가지 행복한 혜택을 드립니다!

기간 2013년 1월 10일 ~ 3월 15일
대상 이벤트 기간 중 예다함 전 상품 가입 고객

행복EVENT1 예다함 가입하고 기아자동차 K3 받자!

이벤트 기간 중 예다함의 상품에 가입 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K3, 스마트 HDTV, 김치냉장고, 아웃도어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 총 2,2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총 210명에게 증정

구분	경품	수량
1등	K3	1
2등	스마트 HDTV	2
3등	김치냉장고	3
4등	아웃도어 상품권 30만원권	4
5등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200

행복EVENT2 월납입금 최대 5회납 면제 받자!

이벤트 기간 중 예다함에 가입하신 모든 고객님께 최대 5회납의 납입금을 면제해드립니다.
(일시납 3회 + 이벤트 2회)

행복EVENT3 사용하지 않은 물품비, 돌려받자! (페이백 품목 확대)

이벤트 기간 중에 예다함에 가입한 고객에게 기존의 4개 품목에서 새롭게 추가된 5개의 품목까지 미사용시 100% 환불해드립니다

4개 품목(기존)	5개 품목(추가)
도우미, 버스, 횡대, 수의	관, 리무진, 제단장식, 꽃바구니, 회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신청 하신분께 드리는 추가혜택

온라인 상담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버블 세탁기 1대, 아이패드 1대)

온라인 상담신청 후 예다함 상품에 가입한 고객 선착순 1,000분께 추가 사은품을 드립니다!
(1만원권의 모바일 상품권)

상기 이벤트 내용(기간,경품 등)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1566-6644 www.yedaham.ca.kr